아이파크, 광명뉴타운의 중심을 바로잡다
IPARK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031) 443-1957
7월 21일 오픈

문화매일신문

내일을 만드는 기회
기회를 만드는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제1495호 2023 / 11 / 30 / Thu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경북도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

전기·가스·수도 체납 여부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 활용

경상북도는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발굴에 나선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매년 6회(격월) 진행하며, 시군과 협조해 위기정보를(18개 기관 제공) 입수·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사회적 고립 가구 등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원한다.

지자체별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는 총 44종으로(기존 39종) 올해 11월부터 ❶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❷채무조정 중지자, ❸고용위기 정보, ❹수도요금 및 ❺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가 추가로 활용된다.

이번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대상은 8천명(전국 16만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전기·가스·수도, 건보료, 통신비 체납 등 위기 요인이 높은 가구를 대상으로 중점 발굴한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는 시군별 복지부서 공무원(899명)과 이통장, 부녀회원, 소매·음식업·숙박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32,201명), 다중시설 업주, 돌봄서비스 종사자, 택배 배달부 등으로 구성된 좋은이웃들(2,090명) 회원 등 사회복지 민·관 사회복지 인력들이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 미거주자, 자·타의적으로 고립된 단절 가구는 시군 우체국과 협업하여 집배원이 거주 및 생활 정보를 수집·공유하는'복지등기우편서비스'를 통해 집중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관공서로 서비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등 대상 여부 조사 종료 후 수급비(생계·의료, 장애인연금 등), 요금감면 등 대상별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우선 지원한다.

특히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부상 등으로 위기가구 지원이 시급한 경우는 긴급복지서비스를 통해 생계·의료·주거·연료비 등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공적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희망2024 나눔캠페인'('23.12.01부터 '24.01.31)을 통해 모금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위문금과 대한적십자사, 민간 결연기관 후원금 등 다양한 민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한편, 위기가구 신고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 신고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또는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한데 주민등록 주소지 신고 톡방에 입장해 신고내용을 입력·전송하면 된다(예: 포항시 희망톡)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는 동절기는 취약계층에게는 외로움과 건강 문제, 난방비 증가 등을 동반하는 가혹한 계절"이라며,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고, 경북도에서도 취약계층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 되어주길"

대통령,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로, 지난 9월 1일 새롭게 임명된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준비 활동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오늘 전체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됐으며,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하여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민주평통의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이 밖에도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해 자유세계와의 굳은 연대와 공조를 역설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개회사에 이어 제21기 자문위원 대표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의 다짐을 담은 '통일의 빛' 퍼포먼스를 통해 발로 뛰는 통일 준비 활동을 천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0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은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수건 퍼포먼스로 대통령 말씀에 화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촌 여동생의 사연을 공개한 탈북민 김혁 상임위원의 다짐 발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위원은 사촌동생을 비롯한 탈북민들의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상에 대한 모든 자문위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또한, 영 김(Young O. Kim)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에드 데이비(Rt. Hon Sir Edward Davey)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 연아 마틴(Yonah Martin)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상원의원 등이 영상을 통해 민주평통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최광수/기자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 범도민이 함께 나선다

김영록 지사, 비전발표서 "도민 건강권은 헌법상 권리" 강조

전라남도의 숙원 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28일 남악스카이웨딩컨벤션센터에서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과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전남도민의 대표성을 가진 정책전문가, 경제계, 학계,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은 허정 에덴병원장, 주상윤 전남도사회단체연합회장, 이주희 동신대학교 총장, 강윤성 광주전남시도민회장이 맡았다. 고문은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총회장, 집행위원장은 범희승 전남대학교병원 화순군립요양병원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위촉됐다.

추진위원회는 지역 대표로서 소속 단체나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내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주도하고 도민의 유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와 대국민 성명 발표, 결의대회 등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전문가 포럼에서 특강을 맡은 범희승 집행위원장은 도내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의사 인력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내 의사 구인난을 예로 들며 지방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도내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캐나다 북부 온타리오주 레이크헤드대학과 로렌시안 대학이 협력해 하나의 의과대학을 설립한 사례를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은 꼭 필요합니다'를 주제로 도내 의대 설립 비전을 직접 발표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대표들이 나서 국립의대 유치에 앞장서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영화 '300'의 300인 용사들처럼 비장한 각오로 도내 의대 유치를 반드시 이루자"고 결의를 다졌다.

또한 김영록 지사는 비전 발표를 통해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차별받아서는 안 될 헌법상의 권리"라며 "국립의대 설립은 지역 맞춤 의사를 양성하고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면서 지역 공공의료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기존 의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의대 없는 전남이 '제로에서 또 제로'가 되는 것으로, 도민 상실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2024년 1월 정부 의대 증원 발표 시 정원 100명의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방침 확정과 신설 로드맵도 함께 발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종배/기자

박채아 경북도의원, 시군에서 학교로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 관리 철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개최 절차 개선 촉구

개최시기 늦으면 12월말까지 예산 집행 못해 반납

경북도의회 박채아(경산3, 국민의힘) 의원은 각 시군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할구역 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 경비보조 심의 절차 개선과 교육지원청의 관리 철저를 촉구했다.

박채아 의원이 경북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시군이 관내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2022년에는 665개 사업에 474억 원, 2023년에는 704개 사업에 예산 3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의 조례에 따르면 교육경비보조금은 각 시군이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①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②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③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④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⑤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이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⑥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등이 대상이다.

박채아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절차와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가 22개 시군마다 달라 각 교육지원청이 수합하고 시군으로 제출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예산 편성 전에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통상 시군이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이전에 ①시군청은 시군의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의 이전에 교육경비 지원 계획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공지하고(22년 6월경) ②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시군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며 ③시군청으로 대상사업을 제출해야 하며(22년 7월경) ④이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원회 개최를 통해(22년 9월) ⑤시군 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22년 12월경) ⑥연초(2023년 1월경)에 교육지원청을 거쳐 학교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 경주, 김천, 영주, 울진 교육지원청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2023년도 1월~3월 사이에 개최함으로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말까지 사용해야 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2023년 하반기에 개최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12월 말까지 예산 집행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칫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수합을 하지 않고 학교가 시군으로 바로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시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중복으로 지원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윤근수/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 IB(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논의는 진영을 넘어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IB(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주제로 교육 전문가 및 시민단체 패널과 'IB 현주소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강산 의원은 개회사에서 "세계 종합국력 6위에 달하는 한국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신뢰 저하는 계속됐다"며 "학생을 암기하는 기계가 아닌 생각하는 인간으로 이끌기 위해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IB의 빛과 그림자를 토론하고 발전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윤범기 MBN 기자가 좌장을 맡고 서울시교육청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의 KB(한국형 바칼로레아)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의 발제와 공다경 2응입시센터 소장,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의 토론이 이어졌으며 청중과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이혜정 교수는 "현행 국가교육과정은 목표 역량과 평가 패러다임 간 괴리가 커 객관식 상대평가만이 가장 공정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IB는 교과서와 교사의 생각을 넘어 내 생각을 기르는 것으로 잠자는 학생을 깨우고 시대적 역량을 키우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IB 교육은 이미 정치적 진영 프레임을 넘어섰다"며 "현재 IB 도입을 추진하는 교육감 중 경기, 대구, 부산은 보수 성향이지만 서울, 충남, 경남, 전남은 진보 성향이다"고 강조했다.

공다경 2응입시센터 소장은 "IB의 취지를 공감하나 비교적 먼저 도입한 제주와 대구 사례를 봤을 때, 수도권에 IB 도입이 본격화되면 사교육 지형 변화는 충분히 예상된다"며 "학생과 학부모는 수능보다 내신 대비에 사교육비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측면이 있어 정책 설계자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은 "현 대입 구조에서 IB를 도입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사교육 부담, 특권 교육, 국적 없는 교육과정 등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현 수능 체제 대신 국가 논술고사 체제를 도입하는 정책 방향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박강산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IB가 KB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작년 영국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의 당수를 지낸 토니 블레어와 존 메이저 전 총리가 진영을 떠나 IB 벤치마킹을 지지한 것처럼 한국사회에서도 IB에 대한 폭넓은 공론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광수/기자

부산시의회,"가덕도신공항 해상 교통 방안"최종보고회 개최

부산시의회 연구단체'가덕도신공항 추진 연구모임'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가덕도신공항이 동남권 허브공항으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 운용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가덕도신공항 추진 연구모임'은 27일 오후 4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가덕도신공항 해상 교통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강서구2)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과 이복조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 등 연구모임 소속 부산시의원이 참석하고, 동양경제연구원 권택우 팀장과 윤율 연구원이 연구 최종보고를 발표했다.

먼저 연구용역을 담당하는 동양경제연구원 권택우 팀장은 해상교통수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해상공항으로서 교통 방안을 다양화는 해양도시로서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할 뿐 아니라, 재난 및 교통혼잡 발생시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교통 방안의 다양화가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업 측면에서 가덕도신공항과 북항을 잇는 경로를 운영하고, 향후 미포항과 다대포항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최적 방안으로 제시했다.또한 부산이 기존 해운항만산업이 발달한 도시인 만큼 해상여객산업 또한 발전 가능성이 크며 궁극적으로는 해운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에는 해상교통수단에 대한 고려가 담겨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상공항으로서 성격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해상교통수단에 대한 기초 검토가 필요하며 부산시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회가 끝나고 의원들의 평가와 제언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박종율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국제적인 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상교통수단 범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산을 넘어 경남과 울산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부산으로만 범위를 좁히면 사업상 한계를 가질 수 있지만, 경남과 울산 모두 해양을 끼고 있는 만큼 확장성 있는 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에 더하여 박대근 의원은 "대부분 육상 교통수단으로 충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상교통수단을 관광산업의 일환으로만 보는 관점이 있지만, 연구용역을 통해 생각의 틀을 깰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내 교통 리스크 문제를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상교통수단의 당위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용역 결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를 남겼다. 이복조 의원은 "해상교통수단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 송현준 의원은 "본 연구용역의 최종보고를 통해 해상교통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재난과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공항이 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를 정책에 녹여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부산시에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국토교통부 간 긴밀히 소통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있어 해상교통수단 운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희태/기자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

2024년 본예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심사

울산시의회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7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본예산,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을 이어갔다.

환경복지위원회는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를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강북·강남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했다.

황규진/기자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 지역기업, 상생에 더욱 힘써야

하병문 의원 5분 자유발언, 대구형 상생모델 만들어야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북구4)은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기업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대구형 상생모델을 만들고 기업시민을 육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하 의원은 "대구시의 대형유통업체는 총 33개이며 이중 지역기여도 평가대상 8개 회사의 2022년 매출은 3조 4천84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역 금융을 이용한 정기예금액은 이전보다 감소한 713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어 "기업의 지역기여도가 낮은 것은 균형발전을 위해 대구로 이전한 공기업도 마찬가지"라며 "한국가스공사는 작년 계약 건수 1,378건 중 53건만 대구지역 업체와 계약했을 뿐이며 대구·경북 권역의 R&D예산은 수도권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말한다.

하의원은 독일기업 바이엘이 본사가 위치한 레버쿠젠시에 과감하게 투자한 예를 들며 "기업이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과 같이 권리와 책임을 갖는 '기업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지역의 기업이 사회적 공헌과 사회적 책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기업과 지역 간 상생을 실현할 수 있는 '대구형 상생모델'을 발굴할 것

▶ 둘째, 기업시민의 이념을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점차 확대할 것

▶ 셋째, 지역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많은 시민이 알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제안한다.

하병문 의원은 "지역기여가 기업의 시혜적 차원이 아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발전 행위로 볼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도시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며 발언을 마친다.

윤근수/기자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 일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미실시 '유감'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은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일부 상임위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 및 의결되지 않아 지난 23일부터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것이나 아직 계획서 채택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광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며,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한다. 2023년도 행감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1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광고국:1899.96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민속촌 일대 교통난 해소 '팔 걷어붙였다'

명절, 연휴 등 이벤트 기간 주변 도로 꽉 막혀 주민 고통 가중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 용인4) 전자영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국민속촌 주변 교통 혼잡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자영 의원은 27일 김민기 국회국토교통위원장,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용인동부경찰서, 한국민속촌과 '민속촌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간담회 결과 관계기관은 △민속촌 내 주차장 선진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과 소통 확대 △지역주민 불편 해소 등 다양한 방안을 주문했다.

김민기 국회국토교통위원장은 "민속촌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 경찰 등 교통체계 시스템 변화는 물론 무엇보다 민속촌 측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역시 민속촌 주변 도로와 신호체계를 점검하고 용인동부경찰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월 말부터 추석 명절, 연휴, 야간개장 등으로 이어진 다양한 할인행사 진행으로 민속촌 일대 도로가 꽉 막혀 제기된 민원으로 10월 7일 현장 간담회를 가진 이후 두 번째다.

이에 앞서 김민기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전자영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야간개장 시간대 민속촌 현장을 방문해 인근 도로와 민속촌 주차여건을 확인했으며 민속촌 내 인파 상황을 살피는 등 민속촌 교통혼잡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전자영 의원은 "이벤트기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대안을 민속촌 측이 빠르게 검토·실행해야 한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을 확대하고 앞으로 진행할 이벤트 기간 이전에 3차 간담회를 열어 대책 논의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범상/기자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 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노동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 및 협의 기능 기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용호 의원은 조례의 제안 설명에서 "노사민정 협의회는 노동자, 사용자, 도민,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등 경기도 각계의 대표들이 함께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써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전문성 확보와 사업의 단계적 실행을 통해 노동 복지, 산업안전, 감정노동자 지원, 재난피해 노동자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31개 시군구 협의회에대한 지원 강화 등 노동행정의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당면한 노동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도록" 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무국 설립 및 운영방법 구체화 △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관계 기관 사람을 위원에 포함 △ 의결사항을 행정기관 등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용호 의원은 " 경기도는 전국 제1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가장 많은 사람이 일하는 곳이다.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사업의 단계적 실행을 통해 노동 복지, 산업안전, 감정노동자 지원, 재난피해 노동자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31개 시군구 협의회에대한 지원 강화 등 노동행정의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당면한 노동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도록 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3년 7월 기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포함 164곳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사무국은 51곳에서 운영을 하고있다. 본 조례안은 12월 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문화재단,《2023 경기 시각예술 집중조명》작가로 김은숙, 민성홍 2인 선정

시각예술 분야 경기 중견작가의 작품세계 집중조명 및 신작 창작활동 지원

경기문화재단은《2023 경기 시각예술 집중조명》작가로 김은숙, 민성홍 2명을 선정했다. 올해 3회를 맞이하는 경기 시각예술 집중조명 프로젝트는 매년 동시대 현대미술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경기 중견작가를 선정하여, 그동안 구축해 온 작업 세계를 집중 조명하고 그 예술적 성과를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다.

《2023 경기 시각예술 집중조명》작가로 선정된 김은숙, 민성홍은 경기도를 기반으로 설치미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작업을 이어온 중견작가들이다. 선정위원단은 향후 경기미술의 방향성을 구축할 수 있는 작가에 주목하며, 동시대적 이슈와 가치를 제기하는 작업 주제, 작업 개념의 지속가능성과 연속성, 작품을 매개로 한 대중과의 소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명의 작가를 최종 선정했다.

김은숙 작가는 사회 구조의 비가시적 요소를 통해 공동체의 사고 변이를 조장하는 현상에 대한 시야각을 조절한다. 만들어진 시각적 틈은 다른 각도에 머물던 비선형적 경계를 시간의 접촉면으로 압축한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정의되지 않은 시간, 존재하지만 알 수 없는 시간 사이의 간격을 예측한다. 별도로 재단되던 현실은 변화의 접점을 만나 공간에 재편집되며 서로 간의 생경한 긴장감을 연출한다.

민성홍 작가는 한동안 사회의 외부 작용으로 인해 위치가 이주, 이동되는 과정에서 남겨진 사물들을 해체, 재조합하는 경험을 통해 정체성, 이산과 집합, 그리고 그 경계의 모호함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남겨진 사물들의 고유 기억과 신체 사이에서 멀어져 가는 감각을 다룬다. 이전부터 등장해 온 제작된 오브제들과 춤추기, 구르기, 달리기, 밀고 당기기 등과 같은 움직임은 본래의 신체와 재조합된 구조를 연결하고 작가의 임의적 경험으로 남겨졌다. 이번 선정을 통해 진행할 작품에서는 작업적 과정에서의 수행을 통해 시각적 매개체를 따라가며 바라보고, 움직이며 뒤엉키는 모습을 기대하며, 인식하고 서로 관계하는 세계에서 사물과 몸짓으로 이면의 감각과 기억을 전이하고자 한다.

선정 작가에게는 각 2천만 원의 창작지원금 혜택이 주어지며, 2024년도 하반기 경기도미술관에서 신작을 포함한 주요 작업을 전시로 선보일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홍근 도의원, 탄소중립 관련 27개 조례 제·개정안 방안 도출

27일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 최종보고…1,100개 자치법규 분석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회장 이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7일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회장인 이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옥분(민, 수원2), 신미숙(민, 화성4), 오지훈(민, 하남3), 이영주(국민의힘, 양주1), 전자영(민, 용인4), 정승현(민, 안산4), 조미자(민, 남양주3) 의원과 연구수행자인 사단법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 등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이번 연구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법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시·군 및 타 지자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사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1,100개가 넘는 경기도 조례를 기후정책통합 평가 기준을 통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과 연관성이 높은 자치법규를 분석했고, 21개 분야 27개 조례 제·개정 및 제도화 방안을 도출했다.

최종보고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RE100 특구 조성 촉진 및 지원 조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 '기후 위기 적응 지원 조례',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 조례' 등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앞으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30%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치법규를 구체화하고 공론화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는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한 정책영역별 탄소중립과의 정합성 분석 및 평가, 상임위원회별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 방향 제안을 목표로 5개월간 진행됐다.

김범상/기자

강태형 경기도의원, "농민 생명과 직결되는 농정예산 확보 위해 노력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매년 감소하는 농정예산… 장기적 국비 확보 방안 수립해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농정예산 감소 및 농어민 기회소득 등에 대해 지적했다.

강태형 의원은 "일반회계 기준 농정예산 점유율이 2021년 4%에서 2023년 3.53%까지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점유율도 3.3%로 감소해 매우 안타깝다"라며, "집행부는 매년 감소하는 예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경기도 농촌 및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농정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장기적인 국비 확보 방안을 수립하라"고 질타했다.

또한 농어민 기회소득을 언급하며 "사업추진 의지도 중요하겠으나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요예측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대상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농어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후위기와 농어촌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 소멸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사업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확립하는 경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김범상/기자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어르신은 왜 접종이 필요한가요?

변이바이러스에 의해 코로나19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새로운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 65세 이상은 65세 미만에 비해 치명률이 약 40배 높습니다.
- 2022년 사망원인 3위는 코로나19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91.9%로 나타났습니다.
* 통계청,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2023.9.21.)
- WHO, 미, 영, 일, 호주 등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이번 신규 백신은 현재 발생하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맞춤형 백신입니다.
- 기존 백신에 비해 현재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최대 4배 효과가 높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 입원·사망 위험을 약 1/20로 줄일 수 있습니다.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접종백신: 현재 변이에 맞춘 신규백신(XBB기반)
권고대상: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및 종사자
| 접종대상 | 12세 이상(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접종가능)
접종일정: 2023.10.19.(목)~2024.3.31.(일)

접종 일정	접종 대상
2023.10.19.(목)~2024.3.31.(일)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역시설 입원·입소 및 종사자
2023.11.1.(수)~2024.3.31.(일)	그 외 12-64세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병 의원) 및 보건소
- 사전 예약 없이도 당일에 바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 사전예약도 가능합니다: 1339 전화예약 및 누리집(https://ncvr.kdca.go.kr) 접속 (대리 예약 가능)

잠깐,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같이 맞아도 될까요?
▸ 가능하다면 두 백신을 같은 날 동시에 맞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 지난 동절기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같이 맞은 분들의 이상사례 신고율은 코로나19만 맞은 분들에 비해 접종부위 통증 등이 약 40% 낮았습니다.

질병관리청 경상북도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고양시 토당청소년수련관, 2024년 문화체육강좌 신규강사 모집

고양시청소년재단 토당청소년수련관이 2024년 문화체육강좌 신규강사를 오는 12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접수된 응시원서 및 강의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서류심사, 면접 심사, 수련관 내부 심의를 통해 최종 강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강사는 빠르면 2024년 1월부터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 강좌의 강사로서 교육문화 또는 생활체육 분야의 강좌를 운영하게 된다.

모집 분야는 마루운동 및 실내 체육 등 생활체육 분야와 피아노 및 학습, 취미, 음악, 미술, 교육, 언어 등 교육문화 분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모집 시간과 요일은 공고문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수련관은 2023년 하반기에 쾌적한 환경에서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하 1층 스쿼시장을 재단장했다. 또한 그룹운동실(GX)을 새로 단장하여 그룹운동(GX)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양질의 강좌 운영이 가능하도록 강좌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수련관 유중원 관장은 "신규 강사를 모집해 수련관에 새롭고 다양한 강좌를 개설 하고 청소년과 지역주민에게 배움의 즐거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토당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 내 강의실 및 체육시설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 교육강좌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스쿼시, 요가, 농구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피아노, 미술, 도예 등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영기/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국가보훈부에 '수원시 보훈 위탁병원 지정 확대' 건의

이재준 시장,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면담하고 건의문 전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국가보훈부에 "수원시 보훈 위탁병원 지정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28일 세종시 국가보훈부를 방문해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을 면담하고, ▲수원시 보훈 위탁병원 지정 확대 ▲현충시설 '프랑스군 참전 기념비' 리모델링 지원 ▲수원 보훈 복지시설 내 특별 이동수단 운영 지원 등 수원시의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보훈 위탁병원 의료 수요가 많은데, 현재 위탁병원이 5개에 불과하다"며 "위탁병원 6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진료과목도 추가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기도 전체 보훈대상자 중 7.64%가 수원시에 거주하고, 경기 남부권 거주 보훈대상자들도 교통접근성이 좋은 수원시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의료수요가 포화된 상태다. 또 지난 10월 위탁의료기관 연령 제한(75세)이 폐지되면서 신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성 질환 의료과목 추가 지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프랑스군 참전 기념비 리모델링'은 프랑스 대사관의 요청 사항이다. 이재준 시장은 노후화된 기념비를 보완하고, 휴게 공간 등을 추가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10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보훈복지시설 내 국가유공자를 위한 휠체어 탑승차량 구입·임차 비용 지원도 건의했다. 수원시에는 보훈원, 보훈요양원, 보훈복지타운 등 3개 보훈복지시설이 있고, 687명이 생활하고 있다. 보훈복지시설 내 국가유공자 평균 연령은 75세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

김범상/기자

성남시, 중·고등학생 위한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 실시

성남시는 수능과 학업에 지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문예술단인 성남시립예술단과 청년프로예술단의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을 연말까지 6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개 학교를 선정했다. 운중중학교(11월30일)를 시작으로 분당경영고등학교(12월 8일), 태평중학교(12월 11일), 위례중앙중학교(12월 13일), 야탑중학교(12월 14일), 문원중학교(12월 15일) 등 성남시립예술단과 청년프로예술단이 3000여 명의 재학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성남시는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된 성남시립예술단이 동별 찾아가는 공연 27회, 파이팅 성남콘서트 19회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 4월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관내 청년프로예술단 보컬과 댄스 각 10팀은 버스킹과 찾아가는 공연 등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연을 60회 이상 실시했다.

다음달 23일에는 성남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에서 시 주관으로 성남시립예술단과 청년예술단의 송년 연합 공연인 '파이팅 성남 콘서트'를 오후 5시부터 개최한다.

시는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과 콘서트를 통해 2024년 청년프로예술단 모집과 '성남 갓 탤런트 예술단' 오디션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중·고등학생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공연 체험을 제공하고 청년예술인들에게는 프로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 내년에도 시민들을 찾아가는 다양한 공연을 준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안양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기업유치 협력' 업무협약

최대호 시장"과감한 지원·투자 필요…기업유치 및 성장지원 추진동력 되기를"

안양시가 기업유치 협력 강화와 중견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와 28일 '기업유치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최희문 중견련 전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는 중견기업 인센티브 및 각종 인허가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중견련은 시의 유치기업 발굴·매칭 및 홍보에 협력하게 된다.

시는 중견련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시의 유치기업 발굴·매칭 및 홍보에 도움을 받는 한편, 기업인을 위한 정책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희문 전무는 "중견기업 지원 조례 제정, 인허가 패스트트랙 신설 등 지역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의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 부가가치가 큰 산업 분야의 역량을 키워야 하고, 이 분야에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기업유치의 핵심"이라며 "이번 협약이 기업 유치와 성장 지원을 위한 추진 동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시청사 부지 등 기업유치 가용부지를 대상으로 미래 신성장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 8월 기업유치추진단을 발족해 전담조직(TF) 및 민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우용/기자

화성시, '2023년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화성시가 부산 벡스포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대통력직속 디지털플랫폼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표창은 공공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개선 등 디지털 플랫폼정부 실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관에 주는 표창이다.

시는 공공부문 전국지자체 최초로 콜센터에 민간의 초거대인공지능을 활용해 과학적인 민원상담 구현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날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화성시,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공동으로 '초거대인공지능기반 디지털플랫폼 혁신' 테마로 화성시 초거대인공지능 민원상담 전시관을 운영했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은 "대한민국 정부박람회를 통해 화성시의 민원행정 서비스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됐다" 며 "앞으로도 백만특례시에 걸맞게 민원행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시민이 신속·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올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초거대인공지능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민간의 초거대인공지능을 콜센터 민원상담분야에 활용한 상담AI어시스턴트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시는 콜센터 상담사가 민원상담시 필요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돼, 민원응답시간을 단축하고 상담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양시현/기자

광명도시공사, 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으로 안전의식 제고

광명골프연습장 내 시설물 안전점검, 화재 초기 진압 훈련

광명도시공사는 28일 광명골프연습장에서 하안119안전센터와 합동 소방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내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훈련에는 광명골프연습장 직원과 소방대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훈련은 광명골프연습장 락커실 내 화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직원들은 ▲화재 전파, ▲화재 경보, ▲화재 진압, ▲대피 유도, ▲중요문서 반출, ▲응급처치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며 화재 대처 요령을 익혔다. 이와 함께 상황 전파부터 화재 신고, 피난 유도 등 지휘 통제 체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일동 사장은 "주기적으로 재난 상황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소방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적용해 고객과 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광명골프연습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시행하고 그중 1회 이상은 관내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윤용민/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성복동 맨발길 조성과 관련한 '시늉 행정' 질타… "야자매트 걷지 않고 흙만 뿌리다니 눈 가리고 아옹하는 건가"라며 재시공 지시

이 시장, 시민 제보 받고 사실 확인한 뒤 "야자매트 위에 흙만 덮는 안이하고 부실한 행정" 지적…"시민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어싱길 만들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수지구 성복동 수지중앙공원 내 산책로에 어싱길(맨발길)을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 야자매트를 걷지 않고 그 위에 흙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시늉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야자매트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곳은 빼고 나머지 길에선 야자매트를 들어내고 어싱길다운 어싱길을 제대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27일 밤 수지중앙공원 산책로에 어싱길을 만든다면서 기존에 설치됐던 낡은 야자매트를 제거하지 않고 산흙을 덮었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사실임을 확인한 뒤 관계 공무원을 질책하고 이같이 전면 재시공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당히 하는 척만 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확실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번 성복동 산길의 엉터리 어싱길 공사와 같은 잘못된 부실행정이 재발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달리 야자매트도 걷지 않고 그 위에 흙을 뿌려 눈가림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으로 관련자들은 질책받아 마땅하다"며 "일부 공무원의 안일함 때문에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게 됐는데, 용인의 모든 공무원들은 이번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올바른 행정을 펼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시민들의 맨발 걷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남은 공원유지보수비로 수지중앙공원과 서봉숲, 소실봉, 수지생태 등 수지구 내 4개 공원 산책로의 일부 구간을 맨발로 걷는 '어싱(Earthing)길로 조성키로 했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시공 과정에서 일부 구간에 대해 현장의 자체 판단으로 낡은 야자매트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흙만 덮어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이 시장의 긴급지시에 따라 시는 12월1일까지 가용인원을 최대한 동원해 수지중앙공원 어싱길 구간에 제거되지 않은 야자매트를 걷어내고 재시공하기로 했다. 또 아직 설치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소실봉 등 3개 공원에 대해선 계획대로 기존 야자매트를 완전히 제거한 뒤 어싱길을 설치키로 했다.

이 시장은 "산길 등을 맨발로 걷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시민의 요구에 따라 어싱길을 가능하면 많이 조성하겠다는 것이 시장의 방침인 만큼 시의 공직자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어싱길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하남시, '함께 걸어요 하남! 가족&이웃' 걷기 챌린지 실시

하남시가 12월 3일까지 '함께 걸어요 하남! 가족&이웃' 걷기 챌린지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걷기 챌린지는 하남시민이라면 누구나 모바일 걷기 앱(APP) '워크온'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워크온' 앱에서 하남시 공식 커뮤니티 '도약하는 걷기실천 하남시민 모여라'에 가입하고 이어 챌린지 항목에서 '함께 걸어요 하남! 가족&이웃 걷기 챌린지'의 '참여하기'를 누르면 된다.

또한 챌린지 기간에 누계 65,000보 걷기에 성공한 시민들 중 추첨을 통해 400명에게 방한 넥워머를 지급하고, 가족 또는 이웃과 함께 걷기 인증사진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하면 40명을 추첨해 보온보냉가방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박강용 하남시보건소장은 "다양한 명품 걷기 길들이 조성되면서, 하남시가 걷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 그리고 20대, 30대 청년들도 참여하는 걷기 챌린지를 통해 지역사회에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걷기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이민근 안산시장, 한동훈 장관 만나 이민청 유치 제안서 전달

"이민청 최적지는 안산"전국 팔도 사람이 모여, 세계인을 부르는 상호문화 도시

안산시는 지난 27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이민근 시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만나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취임 후 이민청 신설을 핵심 추진과제로 강조하며, 현재 여러 관계 부처에 분산된 외국인 정책을 한곳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부부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민근 시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과정에서 안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주민 수가 압도적인 1위로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표준을 만들며,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인 행정 플랫폼을 갖춘 도시임을 부각했다. 또, 이민청이 시민 공감대 및 사회적 포용성이 중요한 만큼,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 세계상호문화도시 지정 도시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안산시에 이민청이 유치 돼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했다. 우선, ▲외국인 주민 10만 1,850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고의 외국인 특화도시 ▲대한민국 정책 표준을 만들며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인 행정 플랫폼을 갖춘 도시 ▲전국 400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안산을 방문해 서로의 삶을 나누는 도시 ▲지난해에만 전국 21만 7,018명 외국인의 한국 생활 정착 지원 ▲이민정책 추진에 있어 갈등 없이 국민통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 ▲국가와 함께 모든 이민정책을 테스트해 전국으로 전파할 수 있는 도시라는 점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행정타운 10개 기관·180명의 전문인력·40개 커뮤니티·4개 대학 3,000명의 유학생·1만 7,000명의 근로자 등 다양한 인재풀을 갖춘 도시 ▲경기서남부권 지역에 대한민국 인구 중 16%에 달하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만큼 거점의 역할 가능 ▲5도 6철의 편리한 교통망 확보 등 논리를 강조하며 73만 안산시민의 뜻을 전했다.

한편, 안산시가 이민청 유치에 성공할 경우 정부부처 유치의 첫 성공사례로 기록된다.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만큼 유관 기관 및 관련 기업 추가 유치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부수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수 지자체가 유치 의지를 피력한 상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외국인 주민지원본부와 다문화 마을 특구 지정 등 안산이 가진 외국인 정책 인프라와 경험은 향후 이민청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민청 유치를 통해 주민 갈등을 줄이고 내·외국인 간의 사회 통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앞으로도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유치위원회, 해외대사관, 각 국가별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등 다양한 공동체와 함께 이민청 유치 희망 연대를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안산시가 외국인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민청을 유치하려는 시의 노력도 지켜보고 있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 등 대한민국이 공존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의정부시 20년간 서류상 사망자였던 노숙인, 생존자 신분 되찾아

20년간 서류상 사망자였던 노숙인이 생존자 신분을 되찾은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다.

의정부시는 11월 28일 시장실에서 이모(57)씨에 대한 '부활 주민등록증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약 20년간 공부상 사망 처리돼 있던 이 씨가 가정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을 통해 신분이 복원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다.

이 씨는 올해 1월 녹양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다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충식, 이하 노숙인센터)는 초기상담 과정에서 이 씨가 사망자 신분임을 확인했다. 이에 이 씨가 간절히 원하는 생존자 신분 복원을 돕기 위해 약 10개월간의 행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되찾아 줬다.

20여 년 전 가출한 이 씨는 일용직 근로 및 고물 수집을 하며 홀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포천에서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고 나서야 본인이 사망신고가 돼 있음을 알게 됐다.

서류상 사망자가 되니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이 불가능했고, 간단한 계약이나 의료서비스, 금융거래조차 할 수 없어 고시원을 전전해야 했다.

이 씨는 삶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주민등록 복원을 위한 노력도 해봤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부담돼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노숙인센터는 이 씨의 생존자 신분 회복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등록부 정정허가' 소송 수임을 의뢰하며 각종 절차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사례관리를 통해 식음료, 구호 물품, 의료진료 연계, 임시거주비를 지원하면서 일상생활도 관리해 줬다.

시 복지정책과는 이 씨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망자 신분임에도 사회복지전산번호를 즉각 부여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우선 책정하고 생계 및 의료, 주거 등 빈틈없이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 씨는 전달식에서 "힘든 날의 연속이었고 사실상 포기했던 삶이었는데, 고마운 사람들을 만나 새 삶을 얻게 되니 희망이 생긴다"며 감격의 소회를 전했다.

김충식 센터장은 "이 씨에게 생존자 신분을 되찾아 주는 일은 10개월이나 걸리는 일이었고, 순조롭지 않은 상황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의정부시의 막힘없는 행정적 지원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민과 관이 협력해 한 시민에게 인생의 절반을 되찾아 준 뜻깊은 사례"라며, "의정부시도 이 씨가 노숙 생활을 벗어나 희망찬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주택과 일자리, 알코올중독 치료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최만식/기자

목포시, 첫 빈대 발견 개인 방역 철저 당부

공중위생업소에서 빈대 확인, 방역 철저 당부

목포시 지난 27일 관내 공중위생업소에서 빈대가 확인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빈대는 크기가 1~6mm의 납작한 모양으로 보통 침대 매트리스, 커튼, 벽지 틈새, 액자 뒷면, 의자나 쇼파 틈, 테이블 아래, 전기 콘센트 등 조그만 틈만 있으면 어디든 숨어 살다가 새벽시간에 나와서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서 흡혈활동을 시작한다.

빈대는 질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물렸을 경우에 약 1~3일 이후부터 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해충이다.

목포시는 집에 빈대가 의심되면 전문 방역업체의 진단을 권고하고 있다. 보통 성충은 눈으로 확인이 되지만 알이나 약충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하고 빈대가 성충이 되기까지 2달 정도 걸리는 점을 생각하면 조기 발견을 통한 정확한 방역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부에서 전문방역용 긴급살충제를 승인했으나 이마저도 보조적 수단이며, 스팀청소기로 고열을 가하거나 직접 찾아서 퇴치하는 물리적 방제가 가장 최우선시 된다.

시 관계자는 빈대와 관련해서 "섣부른 약품 사용은 오히려 빈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숨게 되어 빈대의 무분별한 증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목포시 홈페이지나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빈대정보집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정확한 방역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구례군, 가을철 산불 방지 총력 대응

전남 구례군이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11월 27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산불 방지 총력 대응 등 적극적인 현안업무 추진을 강조했다.

구례군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산불 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5명으로 구성된 '산불 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

'산불 드론 감시단' 2개 조로 나누어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산불 대응용 열화상 드론을 이용해 관내 8개 읍·면 산불 취약지역을 감시할 예정이다.

산림 인접 지역 내 농업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불법 소각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산림 인접 지역의 고춧대, 깻대 등 산불 발생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례군은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선발하는 등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김순호 군수는 "예년보다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므로 산불진화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산불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성현/기자

보성군,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구축

터치 한 번으로 청사 안내 정보 '한눈에 쏙'
민원인 편익 증대 '최첨단 행정서비스' 실현

보성군은 지난 21일부터 청사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청사 배치도와 직원 배치도 및 담당업무를 알려주는 비대면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민원인이 자주 왕래하는 청사 정문과 민원실 입구에 종합안내 키오스크(무인 안내기)를 설치해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종합안내 키오스크는 음성안내가 자동으로 재생돼 시각장애인도 음성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방문객은 화면 터치로 손쉽게 각 부서의 좌석 배치와 담당자 사진,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각 부서 출입구에 종이로 운영하던 직원 배치도도 키오스크로 변경해 민원인이 업무 담당자를 쉽게 확인하게 하고 민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부서별 키오스크는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 후 종이 조직도를 교체·부착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단하고 빠른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를 현행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군 관계자는 "청사 안내 시스템을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까지 확대해 방문객과 직원들 모두가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방문객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원영/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연내 빠른 시간내 광주광역시장 만나겠다"

"민간·군 공항 동시 이전 위해 광주시와 함께 무안군 설득"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8일 광주 민간·군 공항 동시이전과 관련, "광주시, 무안군과 3자협의체가 우선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광주시와 2자회담이라도 추진, 중동순방 후 연내 빠른 시간내에 만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광주시장과 협의해 2자 회담 일정을 잡아 먼저 협의하고, 공동으로 무안군을 설득하는 방안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간담회에서 "최근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측이 무안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뿐만 아니라 12월 예정된 무안군 도민과의 대화도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무안군의 뜻은 아니다"며 "도정보고는 모든 도민에게 해야 하는 의무이자 도민의 권리로서,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무안군에서도 이뤄져야 하고, 그 자리에서 군공항 질의 답변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4일 무안군에 3자 회담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고, 광주시장도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때 했던 '군-민간공항 통합시티 조성' 방침을 최근 다시 얘기하고 있다"며 "이는 무안군을 비롯한 광주·전남의 더 큰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한 3자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은 광역단체 소관사항으로, "군공항 문제는 전남에 기피시설이 입지해야 하는 일이지만, 서남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지난 5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일부 군민이 소음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여느 공항보다 그 피해가 적고, 공항 1·2구역 외 이주 의무 지역이 아닌 3구역까지도 필요하면 이주 계획을 세우겠다. 현재 일부 과장된 소음문제에 대해 객관적 데이트로 정확히 알리는 자리를 빨리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안군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영산강 강변도로를 남악신도시까지 연결하고, 목포권에서 논의하던 트램도 남악·오룡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MRO산단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케이(K)-푸드 융복합산업단지 개발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되면 산단이 부족한 목포권의 투자수요를 비롯해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한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민과 해당 목포대와 순천대의 뜻을 모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전남지역 의대 신설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체 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 100명 규모의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목표로, 이날 출범한 범도민추진위와 함께 공감대 확산 및 정부 호소에 주력해 내년 1월 예정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범도민추진위에서 범희승 집행위원장이 캐나다 북부 온타리오주에서 의료 사각 해소를 위해 레이크헤드 대학과 로렌시안 대학이 공동으로 의과대학을 유치해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충당한 사례를 소개했다"며 "많은 도민과 중앙정부 등에서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두 대학 간 합의가 중요한 만큼, 도민과 두 대학의 총의를 모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기획보도]겨울엔 뭐 먹지? 순천의 겨울味(미)학

알차게, 뜨끈하게, 건강하게,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우는 순천의 겨울 음식

찬바람이 싸늘하게 옷깃을 스치는 겨울이다. 내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순천의 겨울 음식들을 만나보자.

한국인의 소울 푸드 × 순천의 대표 푸드 '국밥'

바야흐로 국밥의 계절이 돌아왔다. 5일장이 열리는 전통시장에 가면 예로부터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국밥이었다. 이른 아침, 솥에 불을 지펴 하루 종일 시장 구석구석에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국밥은 가장 한국적인 전통 패스트푸드이자 한국인의 소울 푸드이다. 북쪽에는 웃장이, 남쪽에는 아랫장이 있는 순천 5일장의 대표 음식 역시 국밥이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순천의 대표 먹자골목인 웃장국밥골목은 매년 국밥축제가 열리는 곳, 올해엔 'K-관광 마켓(전통시장) 10선'에 선정될 정도로 전국구 맛 시장으로 유명하다. 주황색 천막 아래 20여 개 국밥집이 즐비하게 늘어선 웃장국밥골목에 들어서면 인내심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식당 앞에 자리를 잡고 쉼 없이 썰어대는 돼지고기와 하루 종일 김 폴폴 올라오는 대형 국밥 솥의 냄새 공격에선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국밥집 안으로 들어서면, 다닥다닥 붙은 식탁과 의자가 노포(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 분위기를 자아낸다. 순천의 대표 국밥은 같은 돼지국밥이라도 부산의 국밥과는 그 맛과 풍미가 다르다. 주문을 하면 양파와 부추, 쌈장과 초장, 새우젓이 사이좋게 등판하고, 날마다 새로 버무리는 겉절이 느낌의 새 김치와 잘 익은 깍두기가 뒤를 잇는다.

국밥이 나올 차례라고 생각하는 순간 살짝 데친 부추가 올라앉은 수육 한 접시가 떡 하니 배달된다. 국밥을 2인 이상 주문하면 나오는 웃장국밥골목만의 특급 서비스라니, 전라도 인심은 순천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수육으로 든든하게 한 번, 국밥으로 뜨끈하게 두 번, 순천 웃장 국밥이 당길 땐 꼭 친구나 연인, 가족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란다.

겨울의 풍미를 담은 푸짐한 한 상 '꼬막 정식'

전라도의 겨울은 꼬막의 계절이다. 갯벌 너른 순천 역시 뻘의 영양을 듬뿍 품은 꼬막이 그 맛의 나래를 펼치는 시기이다. 찬바람 돌기 시작하는 11월부터 3월까지 꼬막은 맛과 영양의 절정을 이룬다.

순천만 주변 맛집들을 시작으로, 순천만 국가정원, 낙안읍성, 시내 곳곳의 식당들까지 순천 어딜 가든 맛볼 수 있는 대표 시그니처 식재료 역시 '꼬막'이다. 꼬막 하나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내는 '순천食 꼬막 정식'은 로컬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까지 극진한 사랑을 받는 순천의 대표 음식이다.

꼬막 정식을 시키면 일단 데친 꼬막 한 그릇이 등판한다. 이렇다 할 양념도, 반찬도 필요 없이 오로지 '꼬막' 본연의 맛을 즐기는 순천식 애피타이저이다. 밥상에 꼬막 껍데기가 쌓여갈 즈음, 꼬막 정식의 본식이 진행된다. 비법의 양념장 골고루 무친 꼬막무침, 따신 쌀밥에 비벼 먹기 좋은 새콤달콤 꼬막 초무침, 꼬막이 푸짐하게 들어가 더 시원한 꼬막 된장찌개(혹은 꼬막된장국), 실한 꼬막이 통째로 들어간 고소한 꼬막 부침개, 아이들을 꼬막의 세계로 입문시킬 꼬막 탕수육까지 펼쳐진다. 최근에는 꼬막 꼬치구이, 치즈 올린 꼬막 햄버거 등 퓨전 꼬막 요리를 선보이는 식당들도 있다.

꼬막 정식용 밥은 밥그릇이 아닌 냉면 그릇에 나온다. 꼬막 초무침을 듬뿍 넣은 후 참기름 두르고, 김 가루 살짝 뿌려 싹싹 비벼 먹는 게 꼬막 정식의 묘미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꼬막 음식들에 계절의 풍미를 담은 나물과 김치 등 정갈한 계절 반찬들까지 골고루 챙겨 드시길 바란다.

갯벌이 내어준 자연의 맛 '짱뚱어탕'

생긴 걸로만 보자면 이걸 왜 먹지 싶기도, 너무 작아 먹잘 것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작은 몸뚱이가 품은 영양가를 안다면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할 만한 순천의 먹거리가 바로 짱뚱어다. 순천에는 '짱뚱어마을'이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순천 사람들의 짱뚱어 사랑은 남달랐다. 갯벌이 조금만 오염돼도 살지 못하는 까다로운 짱뚱어는 해양오염의 지표가 되었고, 양식이 불가능해 100% 자연산으로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순천에 몇 안 되는 짱뚱어 전문가가 홀치기 낚시로 한 마리, 두 마리 시간과 공을 들여 잡아야 비로소 맛볼 수 있는 짱뚱어는 굽거나, 말리거나, 조리거나, 끓이는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순천에서도 별미로 통하는 짱뚱어는 미꾸라지보다 어획량이 적다 보니, 추어탕보다 값비싼 보양식으로 통한다. 일반적인 생선요리법과 닮았지만, 그 맛만큼은 달라도 확실히 다른 짱뚱어 요리 중 겨울에 특히 매력 발산을 하는 것이 짱뚱어탕이다. 푹 삶아 살만 발라낸 짱뚱어에 된장 풀고 시래기를 더한 짱뚱어탕은 추어탕과 비슷해 보이지만, 짱뚱어 특유의 갯 내음이 살아있어 진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짱뚱어탕이 나오면 일단 국물 맛에 집중해야 한다. 구수하면서 걸쭉하고, 시원하면서 칼칼한 짱뚱어탕 맛에 적셔들 때쯤에 밥을 말기 시작한다. 짱뚱어 국물이 진하게 밴 밥을 크게 한 숟가락 떠서 한 입, 순천 특산품인 고들빼기김치를 곁들여 또 한 입, 짱뚱어탕 하나만 시켜도 제철 식재료로 만든 밑반찬이 골고루 나오니 순천식 반찬들까지 야무지게 즐길 수 있다. 짱뚱어탕이 입 안으로 점점 사라져가고, 뚝배기 속 내용물이 줄어드는 게 아쉽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짱뚱어탕의 맛에 제대로 빠진 것이다.

한겨울, 짱뚱어탕 맛에 진하게 입문했다면 다른 계절엔 짱뚱어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짱뚱어 전골에 도전해 보시길 바란다. 짱뚱어가 통째로 들어간 전골은 짱뚱어의 찐 맛을 느낄 수 있는 보양식 중에 보양식이다. 일단 국물 맛은 살을 발라내 걸쭉한 탕과는 또 다른 시원함이 있다.

상큼한 맛에 든든한 영양까지, 일거양득 일타쌍피 '미나리 삼겹살'

흔히 미나리를 봄의 전령사라고 한다. 하지만 순천 미나리의 수확 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한겨울에도 실하게 자란 미나리를 맛볼 수 있단 얘기다. 도사면과 별량면 200여 농가가 미나리를 손수 키우는 순천은 60여 년 전통의 미나리 산지이다. 순천의 청정 자연이 키운 미나리는 꽉 찬 식감과 풍부한 섬유질로 전국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한다.

미나리를 복탕이나 오리탕의 부재료로 생각하는 시대는 이제 갔다. 순천의 식당들은 미나리 파전, 미나리 떡갈비 등 미나리를 활용한 음식 개발에 열성적이고, 미나리 삼겹살 식당까지 있다.

산지에서 바로 수확해 바로 제공하니 그 신선함이야 두말하면 입 아플 일이다. 불판이 달아오르면 삼겹살 바로 옆자리에 미나리가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한다. 부재료가 아닌 메인 재료로 대등한 관계 형성이 이뤄지는 것이다. 돼지고기로 느끼해지기 일보 직전, 미나리 특유의 상쾌한 향과 맛이 입맛을 산뜻하고 개운하게 잡아주니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이 또 있을까.

고지방인 삼겹살이 우리 몸을 산성으로 변하게 하려는 찰나, 알칼리성 식품의 대표주자인 미나리가 등판해 몸의 균형까지 잡아주니 영양 측면에서도 금상첨화이다. 기왕이면 미나리 삼겹살을 기본으로 미나리 생목살, 미나리 항정살에 미나리 육회비빔밥까지 알뜰하게 챙기시길 추천한다.

'나만 알고 싶은' 모두의 귀한 맛 '백반과 한정식'

사통팔달의 도시 순천은 예로부터 물자가 풍부한 고장이었다. 순천의 비옥한 땅과 넉넉한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는 물론, 이웃한 주변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까지 역전시장, 아랫장시장, 웃장시장으로 총집합한 덕분에 사시사철 종합먹거리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덕분에 순천의 식당들은 제철 음식 내기가 쉬웠다. 제철에 나는 찬들로만 차려내도 그 자체로 '특별한' 한 상이 완성됐기 때문이다. 순천의 백반집들이 긴 세월 변함없이 한 자리를 지켜온 이유기도 하다.

순천 백반은 가성비가 좋다. 계절에 맞는 육해공군, 산해진미를 차려내고도 서민들 주머니 생각해 주는 착한 맛집이다. 맛 좋은 엄마표 집밥에 인심까지 후하니 수십 년 단골들이 없을 수 없다. 최근 인기 유튜브 채널 '또 간 집'에 추천할 만한 백반집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단골들은 싫어할지 모른다. '나만 알고 싶은' 귀한 맛집일 테니까.

백반보다 좀 더 차림새 있고, 격식 있는 밥상을 원한다면 한정식을 추천한다. 손님 접대가 많은 시청을 중심으로 60여 년 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한정식집은 각자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음식들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손님들을 맞이한다.

계절별 나물 반찬들과 김치류, 전라도를 대표하는 갖은 젓갈류를 기본으로 수육에 갈비찜, 홍어, 홍어찜, 육회, 육회사시미, 생선구이, 생선찜, 탕에 조림 등 그 가짓수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상다리가 휘어진다는 말을 어디 가서 하면 안 될 것 같은, 말 그대로 진수성찬 맛집이다. '비싼 값'을 맛과 정성,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으로 채우는 '가심비' 좋은 한정식은 함께 먹고 싶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순천의 귀한 맛이다.

순천의 건강한 매실을 더한, 세상 단 하나뿐인 '매실 닭강정'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는 닭요리다. 닭 한 마리를 압력솥에 통째로 튀겨낸 마늘 통닭, 산장의 역사와 함께 해온 닭구이, 푸짐한 닭 코스 요리 등을 발굴해 온 순천은 닭요리의 대표 도시다. 거기다 순천은 당도 높고, 신맛이 조화로운, 대한민국에서 매실이 가장 잘 자라는 지역 중 하나다.

소화를 돕는 건강한 매실과 인기 만점 닭의 이유 있는 만남, 그렇게 순천 매실 닭강정이 탄생했다. '2022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전국음식경연대회' 대상 수상작이자, 올해 열린 '순천매실 시그니처 디저트 공모전'에서도 영예의 대상을 거머쥔 뼈대 있는 이력의 순천 매실 닭강정은 대한민국 한식 대가가 직접 개발한 작품이다.

주인장이 직접 담근 매실액과 직접 개발한 매실 간장을 섞어 숙성을 시킨 뒤, 바삭하게 튀겨낸 닭강정에 머스터드 크림소스와 매실 소스를 섞어 버무리고 그 위에 국산 들깨를 뿌려 건강에 건강함을 더했다. 시그니처 닭강정과 수제 매실 양념 특제소스로 달콤함을 배가시킨 달콤 매실 닭강정은 기존에 먹어왔던 닭강정과는 닭의 육질부터 소스까지 확연히 다른, 차별화된 맛과 건강함을 품고 있다.

함께 나오는 매실장아찌는 느끼해지기 쉬운 튀긴 요리의 맛을 달콤·새콤·상큼하게 채워준다. 아삭아삭 씹히는 소리와 식감은 먹는 재미는 덤이다. 순천이 키운 매실을 더해, 순천의 손맛으로 만들고, 순천에서만 맛볼 수 있는 세상 단 하나뿐인 닭강정, 우리 가족에게 주고 싶은 순천의 건강하고 행복한 맛이다.

이승준/기자

전북도, 미래 신산업을 담은 금융중심지의 새지도 그린다

연기금·자산운용, 디지털금융, 전북 신산업 등 미래 수요를 뒷받침하는 전북형 금융허브 발전 전략 마련

전북도는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자산운용, 디지털 금융모델을 비롯해 전북의 신산업인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등 지역 특성과 연계한 '전북 금융허브 종합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 착수했다.

전북도는 28일 도청에서 천세창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을 비롯한 금융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금융허브 발전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용역의 수행기관은 2021년 금융위원회의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을 수행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됐으며, 2024년 12월까지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과업은 ▲글로벌 금융환경 여건 분석,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타당성 검토, ▲전북 금융허브의 주력부문 설정 및 발전전략 도출, ▲전북 금융허브의 종합개발계획 수립, ▲기대효과 등이며,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 학계, 금융기관,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포럼을 별도로 구성·운영(분기별 1회 이상)하여 연구용역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최신 글로벌 금융·경제환경과 전북 신산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허브 발전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정부 계획 반영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천세창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우리 도는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민간투자 협약('23.11월),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전주사무소 추가 개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금융산업 육성 특례 반영 등을 통해 금융도시 조성 여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전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완성도 있는 전북 금융허브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전북이 글로벌 금융도시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나주시, 옛 영산포제일병원 '공공형 병원'으로 새단장

나주시-세화의료재단, 응급실 등 준종합병원 설립

옛 영산포 제일병원이 내년도 상반기 공공형 종합병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과 추진 중인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12월 중순부터 옛 영산포 제일병원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응급실이나 입원 병상이 없어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불편을 겪어온 영산포, 남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뤄지게 됐다.

나주시는 민선 8기 공약인 주민들의 열악한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옛 영산포 제일병원을 활용한 공공형 종합병원 설립을 역점 추진해왔다.

이창동에 위치한 옛 영산포 제일병원은 지난 2019년 11월 폐업된 이래 빈 건물로 방치돼왔다.

병원 폐업으로 인해 영산포, 남부권역 주민들은 응급상황 시 관내 또는 타지역 종합병원으로 먼 거리를 오고 가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왔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이사장 김미순)과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법인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공공형 병원 설립 논의를 지속해왔다.

세화의료재단은 나주시 금천면에 위치한 나주효사랑병원·효사랑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양 기관은 오랜 협의 끝에 지난 10월 부지 계약을 진행했으며 내달부터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병원은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응급의학과(응급실)를 갖춘 종합병원급 공공형 의료시설로 재탄생된다.

시는 특히 전라남도에 다문화 진료센터 건립을 건의한 결과 도비 5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및 가족, 외국국적동포, 이주민 등 의료소외계층을 위해 다국적 통역사를 갖춘 외국인 진료센터를 원내 신설할 방침이다.

김인형 세화의료재단 상임이사는 "20여년 간 나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온 재단이 공공형 병원 설립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열악한 의료 환경에 놓여있던 영산포, 남부권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린 응급진료, 입원이 가능한 공공형 병원이 내년 상반기 개원할 수 있도록 재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남원 춘향애인 샤인머스캣 포도 캐나다 첫 수출 개시

캐나다 토론토 갤러리아 유통매장에 360박스 1톤 첫 수출

남원시 주요 수출 농산물 중 하나인 샤인머스캣 포도가 지리산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 선별하여 28일 캐나다로 2kg 240박스, 4kg 120박스 총 360박스 21백만 원을 올해 첫 항공으로 수출했다.

남원에서 생산된 포도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맛과 당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2년 처음으로 캠벨포도를 뉴질랜드, 미국으로 수출을 시작했으며 샤인머스캣은 2021년부터 베트남 및 홍콩으로 수출하게 됐다.

남원 샤인머스캣은 섬진강 부근의 평야지부터 해발 500m 지리산 고랭지까지 재배하며 고랭지 샤인머스캣은 일조량과 밤낮의 일교차로 높은 당도, 튼튼한 과육과 크기가 크고 출하량이 많아 수출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공동선별을 통해 수출은 물론 국내 대형유통매장 납품 및 홈쇼핑에 판매하고 있다.

남원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 농축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홍콩 한인홍 매장과 베트남 하노이 K마트에서 남원 농특산물(샤인머스캣, 딸기, 복숭아, 가공식품 등) 홍보 판촉행사를 갖고

현지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지속적인 수출을 하고 있다.

또한, 샤인머스캣 포도는 올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정한 캐나다 수출 검역 단지로 지정됐으며, 2024년에는 기존 홍콩, 베트남뿐만 아니라 캐나다, 중국에도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샤인머스캣 포도가 남원시 대표 수출 효자품목으로 성장하여 포도 재배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완도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완도읍 주도, 군외면 영흥, 신지면 금곡, 청산면 진산·청계 등 5개 마을'우수 으뜸마을'로 선정

완도군이 '2023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의 3,00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전남도에서는 사업 추진 후 주민 참여도, 우수 마을 선정 건수, 추진단 운영 실적, 홍보 실적, 수범 사례 등의 항목을 평가해 우수 으뜸마을 75개소를 선정했다.

완도군은 완도읍 주도마을, 군외면 영흥마을, 신지면 금곡마을, 청산면 진산마을·청계마을 등 5개 마을이 '우수 으뜸마을'로 선정되면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완도 주도마을'은 1960~70년대 수산물 수출이 호황을 이루던 시절 강아지도 500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녔다던 과거 문화를 재조명하고, '군외 영흥마을'은 남쪽의 쪽빛 바다와 함께 걷는 남파랑길 86코스에 주민 주도로 쉼터를 조성하고 청정 갯벌을 무료 개방했다.

'신지 금곡마을'은 태양광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치안유지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청산 진산마을'은 폐교를 활용한 과거 기록물 전시, 슬로걷기축제와 연계한 청산도 관광 콘텐츠 개발, '청계마을'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여 범바위에 조형물 설치 및 귀농산 어촌마을과 연계한 화단 조성·도자기 문패 제작 등을 추진했다.

완도군은 천연자원 활용과 공모 사업 연계, 마을의 특색을 반영한 사업 추진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천종실 행정지원과장은 "마을 환경과 경

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내년에도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토양에 '주민 주도'의 씨앗을 뿌리고 '자치 역량'이라는 비료를 공급하여 '풀뿌리 주민자치'라는 과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쏟을 계획이다.

양영율/기자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공인배 지도사, 동오농업과학기술인상 최우수상 수상

시설원예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으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

28일 전남 함평군은 "농업기술센터 품목개발팀 공인배 농촌지도사가 지난 27일 동오농촌재단(이사장 이병만)이 주관한 '제5회 동오농업과학기술인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동오농업과학기술인상은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을 선도하며 한국 농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농업과학 기술인들에게 동오농촌재단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공인배 농촌지도사는 ▲시설원예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온실 운영 및 교육 ▲원예작물 새작목 도입 및 신기술 보급 확산 ▲농업인 연구회 육성을 통한 분야별 농업기술 보급 ▲과학농업 실천을 위한 기술지원 등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공인배 농촌지도사는 지난 2007년 공직에 입문한 뒤 식량작물, 농촌지원, 원예작물 등의 업무를 두루 역임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농촌지도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시설원예 농업인에 대한 스마트팜 확산, 스마트팜 교육과 현장 컨설팅 지원과 함께 권역별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을 운영하는 등 농업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있다.

공인배 농촌지도사는 "앞으로도 농업분야 신기술 개발 및 보급하며 함평군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경북도, 참외 수경재배 기술로 생산액 8천억 시대 준비

참외 대표 주산지 성주, 올해 참외생산액 사상 최고 6,014억원 돌파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는 경북도의 대표 특화작물인 참외의 수경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농가에서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발간해 농가에 보급했다.

경북도는 전국 참외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주산지 성주군의 올해 참외 생산액은 사상 최고인 6천 14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참외 명장, 마이스터, 명인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농업인이 1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탄탄한 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선진 재배 기술과 유통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참외 생산성을 1.7배나 높이면서 일손은 크게 줄일 수 있어 연간 1천 9백억 원의 생산액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수경재배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발간, 보급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수경재배 개념과 효과 △수경재배 시설 설치 방법 △참외 전용 배양액 정보 △양분과 수분 공급 △양액기 관리 등 참외 수경재배를 위한 핵심기술을 수록했다.

또, 농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자료를 많이 포함해 제작했으며 책자는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참외는 토경 재배가 대부분으로 노동력이 많이 들고, 포복 재배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기 쉬운 농작업 환경이며, 최근 기후변화로 담배가루이, 흰가루병 등 병해충 발생이 증가해 생산성 악화로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어 새로운 농사 방법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술원은 앞으로 일손 부족은 더욱 심해지고, 참외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병해충 방제, 수확 등의 농작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로봇을 이용하는 기술과 헹잉베드를 이용한 참외 수직재배 등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다양한 기술을 연구할 계획이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참외 수경재배 기술은 재배환경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첫 번째 변화이며, 경북의 대표적인 특화작물인 참외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해 '소득은 두 배로 높이고 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야간 토크 콘서트 '낭만에 대하여' 운영

12.8. 19:00~20:30,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에서 운영

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와 오는 12월 8일 오후 7시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에서 야간 토크 콘서트 '낭만에 대하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문체부 공모로 선정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집중권역인 용두산공원 일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지난 11월 열렸던 광복동 레코드 페어와 함께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에 야간관광 콘텐츠를 더함으로써 부산만의 이야기와 문화가 살아있는 원도심의 매력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토크 콘서트는 ▲최백호 ▲조나단 ▲이슬아 ▲이휜 ▲밴드 차세대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출연자들이 낭만과 예술, 문학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관객과 함께 풀어나갈 예정이다.

"낭만에 대하여", "청사포" 등 노래로 낭만과 추억을 나누는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인 가수 최백호가 출연해 중장년층의 낭만을 이야기하고 노래한다.

독립 연재 프로젝트 "일간 이슬아"로 출판계의 새로운 획을 그은 이슬아 작가와 작업실 두 눈의 대표이자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휜 작가, 그리고 솔직한 매력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조나단 등 세대별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출연자들이 펼치는 낭만에 대한 이야기가 노래와 시, 음악을 통해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같은 날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야외 마당에서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을 비롯해 부산의 겨울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실시된다.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야외 마당에 조명과 오너먼트로 꾸며진 대형 트리를 중심으로 크리스마크 포토존이 설치되며, 스노우 머신을 이용한 눈 내리는 부산도 연출될 예정이다.

또한, 12월 3일을 시작으로 24일까지 매주 일요일 4회에 걸쳐 '보수동 사진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된다. 이번 원데이 클래스는 레트로 사진 촬영을 콘셉트로 보수동 책방골목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착순 예약을 통해 매회 10명 내외의 인원을 모집한 후 이론과 실습, 총 3시간에 걸쳐 레트로 사진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보수동 책방골목에서 사진을 통해 숨어 있는 매력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박근록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이번 행사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용두산공원과 그 인근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부산근현대역사관과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 원도심의 추억과 낭만, 이야기를 야간관광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전 예약 등 행사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야간관광 전용 채널 인스타그램 별바다부산과 부산관광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태/기자

대구의료원, 정신응급대응 협력기관 합동회의 개최

신속한 정신응급대응 체계 구축,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 모색

대구의료원은 신속한 정신응급대응 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2일 '정신응급대응 협력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대구 서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 공공의료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합동 회의는 대구경찰청, 대구소방안전본부,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내 정신의료기관(대구정신병원, 미주병원, 서대구대동병원, 수성중동병원, 제이원병원)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구의료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중점 분야인 '정신건강증진 협력사업'은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과의 정신응급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신과적 응급상황의 대응 지연 해소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신응급대응 과정 시 겪는 단계별(병원 전 단계, 병원 단계, 퇴원 후 단계) 어려움과 향후 개선 방안, 기관별 협조 요청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들은 대구의료원에서 응급입원 기한이 만료된 정신응급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24시간 상시 입원치료가 가능한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개소로 경찰과 소방의 대응 지연이 눈에 띄게 감소해 주변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만족감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서창민 대구의료원 제1정신건강의학과장은 "각 협력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 합동회의는 협력기관이 함께 모여 정신응급대응 문제를 공유하고 개선 및 협조 방안을 논의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으며, 향후 보다 강화된 협력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혁준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장은 "정신건강증진 협력사업이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을 잇는 가교 역할에 앞장서고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살고 싶은 행복농촌 만들기 총력 준비!

민·관이 함께하는 농촌협약위원회 개최

청송군이 지난 11월 27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농촌협약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청송군에 따르면 농촌협약위원회는 민·관이 함께하는 의사결정기구로, 농촌협약 체결대상이 되는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단위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조정·의결 등을 목적으로 부군수(위원장)을 비롯하여 군의원, 주민대표, 행정조직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촌협약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 동안 진행된 생활권단위 주민위원회, 행정협의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농촌협약은 농촌지역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 시 5년간 최대 3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청송군은 2024년 신청을 계획중에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2024년 농촌협약 신청 및 선정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고 계시다"면서 "청송군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력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2023 자원봉사자대회 및 어울림 한마당 성료

10개 부문 83명 친절한경자씨 표창, 힐링 음악회로 자긍심 고취

(사)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2023 경주시 자원봉사자대회 및 어울림 한마당'이 28일 더케이호텔경주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철우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정재윤 이사장 및 친절한경자씨 회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대회는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맞이해 한 해 동안 묵묵히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자원봉사 문화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자원봉사, 당신을 빛낼 한 단어'라는 주제로 유공자 시상, APEC 정상회의 유치기원 퍼포먼스, 어울림한마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시상식에서는 경북도지사, 경주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 등 10개 부문에서 총 83명의 친절한경자씨들이 표창을 받았다.

이어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기원 퍼포먼스를 펼치며 참가자들이 한 마음으로 유치 결의를 다졌다.

또 어울림한마당에서는 힐링 음악회와 경품추첨을 통해 한 해 동안 고생한 자원봉사자들을 응원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의 크고 작은 행사나 재난 발생 현장에는 항상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했다"며 "친절한 경자씨를 비롯한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화합과 밝히는 경주를 만드는데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윤타용/기자

영양군,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실천

'별별마당'플리마켓팀, 이웃돕기 성금 전달

'별별마당'플리마켓팀은 지난 11월 9일 영양군청 앞 잔디광장에서 개최한 '2023 사랑의 일일나눔마당'에 참여한 수익금의 일부를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아름다운공방, 들꽃, 아뜰리에헤랑, 별다바공방, 솔향원, 또바기건어물, 농부의키친, 도니디저트, 그리다, 스위트리사과, 소풍, 일월붕어빵 플리마켓팀은 지역의 농특산물과 수공예 소품, 다양한 먹거리 등을 판매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뜻깊은 기부에 동참했다.

플리마켓팀에서 기부한 180만 원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액 영양군에 기부되며 2024년도에 긴급구호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영양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한'사랑의 일일나눔마당'은 2015년부터 시작해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마련된 수익금 1천5백만 원 역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액 기부되며 2024년도 읍면의 복지사업비로 지원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의미있는 행사에 참여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주신 별별마당 플리마켓팀 및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영양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노인분과 특화사업

봉화군 독거노인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추진

봉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봉화군 로컬푸드 2층에서 100여 명의 어르신과 수행인력을 대상으로 노인 분과 특화사업을 개최했다.

노인분과 특화사업은 지역 내 불면증, 스트레스가 심한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불면증과 스트레스 등 감정에 대한 강의와 함께 아로마 오일 스프레이 제작 체험을 진행해 스트레스 완화 및 수면 유도에 도움을 줬다.

법전면 이OO(85세) 어르신은 "아로마라는 향기를 통해서 마음이 불편한 게 편안해진다는 것이 신기하고 향기를 통해 감정이 조절된다는 것도 배우고 체험도 좋았다."면서 "다음에 이러한 체험을 또 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박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어르신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특화사업을 통해 참여한 어르신들이 불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양한 실무분과에서 각 영역을 대표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해 지역이 어려움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봉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분과는 기능별, 대상자별로 총 6개 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가족돌봄, 고용자활, 노인, 생명사랑, 장애인, 통합사례관리분과로 운영 중이다.

지역 내 다양한 현안 논의, 복지자원 발굴 연계, 특화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모니터링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노인분과는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노인복지관, 봉화요양원(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 치매관리팀,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지역자활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노인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봉화군 노인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한울본부' '2023 자매부서·사회공헌 담당자 워크숍' 개최

이세용 한울본부장,"지난 1년간 지역 공헌 활동을 위해 힘써준 담당자분들께 감사, 앞으로도 한울본부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28일 경북 울진 덕구온천호텔 세미나장에서 '2023년도 하반기 자매부서·사회공헌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매부서 및 사회공헌 담당자가 함께 모여 지난 1년간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각 분야별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각 부서 및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개최된 워크숍에는 한울본부 자매마을·사회공헌 담당 직원을 비롯, 울진군이장연합회장, 북면·죽변면·울진읍 이장협의회장, 울진지역자활센터장 등이 참석해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포상에서 '자매마을 활동 최우수부서'는 신한울1발전소 방사선안전부가 차지하였으며,, '자매면 최우수부서'는 방재대책부와 홍보부가 차지하였고, '사회공헌활동 최우수부서'는 신한울2건설소 공사관리부가 영예의 상을 수상했다.

또한, '최우수 봉사동호회'로는 HUB 한울밴드가 채택됐으며, '개인 최우수상'으로는 사회공헌 회장인ICT부 유동완 차장이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사회공헌 직원으로 뽑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세용 한울본부장은 "지난 1년간 지역 공헌 활동을 위해 힘써주신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울본부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도민건강 보호 앞장

29일, 경상북도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개최

경상북도는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소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강화된 관리대책을 실시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됐다.

도는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국장 주재로 29일 개최한 경상북도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행해야 할 대책에 대한 논의를 거쳐 확정하여 시행한다.

경북도는 이 기간 동안 분야별로 미세먼지 감축 계획을 수립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347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고, 도로 청소 주기를 확대해 일 2에서 4회 이상 청소를 실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 지역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은 운행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온도 18°C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지하 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 조치를 이행한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3,103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한다.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버스승강장 부스형 쉼터 등 미세먼지 안심공간 98개소를 운영하며 전광판 54개소, 미세먼지 신호등 177개소를 이용해 생활 주변에서 쉽게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한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활동이 회복되고 대기 정체가 늘 것으로 전망되어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도민들께서도 5등급차 운행 자제, 실내 난방온도 1°C 낮추기 등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영주1동,사랑의 김장김치 후원 이어져 "김치나눔으로 따뜻한 선행"

추워지는 날씨에 영주시 영주1동에는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김장김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한 영주1동 새마을지도자 이대성 씨와 영주시NGO단체 회장인 박연서 씨가 그 주인공이다.

먼저,지난달15일에는 영주1동 새마을지도자 이대성 씨가 관내 홀몸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이 추운 겨울을 잘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김치35통(350kg)을 후원했다.

28일에도 영주시NGO단체에서 따뜻한 마음을 담아 김치35통(350kg)을 영주1동에 후원했다.

후원된 김치70통은 영주1동 홀몸어르신 등 소외계층70가구에 전달됐다.김장김치를 전달받은 박○○(여, 76세)어르신은"요즘 몸도 아프고 해서 이번 겨울은 김장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나눠주셔서 걱정을 덜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문수 영주1동장은"어려운 이웃에게 꾸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어 매우 감사하다"며, "김치를 지원받는 분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지도자 이대성 씨는 폐지수거로 모은 돈을 매년 이웃을 위해 인재육성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선행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NGO단체 또한 다양한 봉사활동 및 후원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금자/기자

문경시-LH,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 협약 체결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년도 토지 보상 실시!

문경시가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보상을 위해 11월 28일 오후 2시 문경시청 제2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첫 발자국을 떼는 셈이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등을 우선 보상하여 비축하고, 문경시에서 보상을 완료한 비축 토지를 3년 이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취득한다.

비축 토지는 문경읍 마원리 일대 시유지 및 국공유지를 제외한 223,017㎡ 규모의 총 214필지이며,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약 28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국토교통부의 비축 사업계획이 승인·고시하면 한국주택토지공사는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를 2024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착공은 2024년 하반기로 계획됐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전문 인력을 통한 일괄보상에 따른 민원 해결과 적기에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급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향후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 등 문경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어우러져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 사업이 초석이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문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안동시 '태화 건강 소식지' 발행

손이 꽁꽁 발이 꽁꽁한 겨울! 건강 소식지 보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안동시 태화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이 태화동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 번째 「태화 건강 소식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2023년 「태화 건강 소식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지역주민에게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건강 소식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문구를 삽입하여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도 기여했다.

이번 「태화 건강 소식지」는 지난 봄철 환절기 건강관리법, 여름철 폭염 대비 건강관리법에 이어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다양한 건강 정보를 담았다. 까치소식과 함께 주민들에게 배부되어 계절별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법을 공유함으로써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사전 예방관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한편, 태화동은 3차례의 건강 소식지 배부와 함께 방문 상담 등을 통한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돕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가고 있다.

권기원 태화동장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은 아주 중요하다"라며, "건강 소식지에 주민들이 알아야 할 계절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건강 정보를 담았으니 태화동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참고하시어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포항에 과메기 먹으러 왔어요! 죽도시장 인파 '북적' 지역경제 '활력'

동해안 최대 규모를 갖춘 포항 죽도시장에 겨울철 지역의 대표 별미인 과메기와 대게를 맛보기 위한 인파들이 몰려오면서 전통시장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과메기가 제철을 맞아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주말 포항 죽도시장 내 대게·회타운 거리에 쉴 새 없이 많은 인파가 몰렸으며 건어물과 수산물 또한 인기 상품으로 팔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600억 원 매출을 목표로 급성장하고 있는 '포항 구룡포과메기'는 쫀득쫀득한 식감과 칼슘을 비롯해 오메가3, 아스파라긴산, 비타민을 함유해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을 타고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죽도어시장에서 과메기를 판매하고 있는 한 상가는 최근 주말 평균 500만 원 이상 판매가 되고 있으며, 평일에도 100만 원 이상의 택배와 현장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죽도시장의 인기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버스도 줄을 잇고 있다.

하루 평균 50대, 주말에는 80대 이상의 관광버스가 죽도시장을 방문해 외지 관광객들이 싱싱한 수산물과 지역의 농산물을 구매하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매출이 증가하는 등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죽도시장의 활력에는 포항시에서 추진한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도 큰 역할을 했다.

포항시는 죽도어시장 앞 도로 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칠성천주차장, 죽도어시장(타워) 등 3곳을 연말까지 1시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 품질관리센터에서 과메기, 수산물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미생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202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으로 건어물 아케이트 조성 등 노후시설 개선 투자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 지원 등 시설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죽도시장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 및 화재 안전시설 보수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을 대표하는 죽도시장을 비롯한 지역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상인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해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김학동 예천군수, '귀농활성화 선도인상' 수상!

안정적인 귀농 지원정책,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귀농 · 귀촌인에게 각광 받아

김학동 군수, **"귀농활성화 선도인상 받게 돼 매우 기쁘고, 앞으로 귀농 · 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민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농협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지나 29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2023년 귀농활성화 선도인상'을 수상했다.

귀농활성화 선도인상은 농협중앙회에서 귀농 정책을 통해 농업인구 증대를 이끌고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귀농정책사업 추진을 통해 귀농활성화와 농촌지역 인구유입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았다.

예천군은 ▲귀농인 영농기반·정착지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의 집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지원사업과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융자사업을 추진하며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신도시에 이주해 온 주민들과 귀농·귀촌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범우리공원 숲속놀이터 조성 ▲패밀리파크 및 실개천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도 힘썼다.

김학동 군수는 "예천군 농업경쟁력 강화와 인구 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귀농활성화 선도인상 받게 돼 매우 기쁘고, 앞으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민의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경북도, 2023 대한민국 에너지 국민대전 개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과 SMR의 역할 모색

경북도는 28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3 대한민국 에너지 국민대전'을 개최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매일신문이 공동 주최하며 매일신문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한전KPS(주), 한국전력기술(주)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에너지 기술 발달과 정책 변화에 따른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내년 6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경북 및 경주 지역의 미래 방향에 대해 산·학·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상희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이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도별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동형 MSR원천기술개발 사업단장이 '분산에너지활성화에 따른 SMR의 미래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요 세미나 발제 이후에는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을 좌장으로 '분산에너지지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북 지역의 에너지 산업방향'에 대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에는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최덕규 경북도의회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 교수가 참석했다.

포럼 환영사에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상북도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모두 모여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전력공급의 중심지"라며, "이는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고 선제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대립이 아닌 상호보완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면서, "경북도가 분산에너지활성화법 시행에 맞춰 각 에너지원의 역할을 잘 찾아 진정한 에너지 분권을 선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 제2 수성알파시티 조성 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성구 삼덕동·대흥동 일원, 584,357㎡, 2023년 11월 27일 지정·공고

대구광역시는 제2 수성알파시티 조성 사업 예정지에 대해 2023년 11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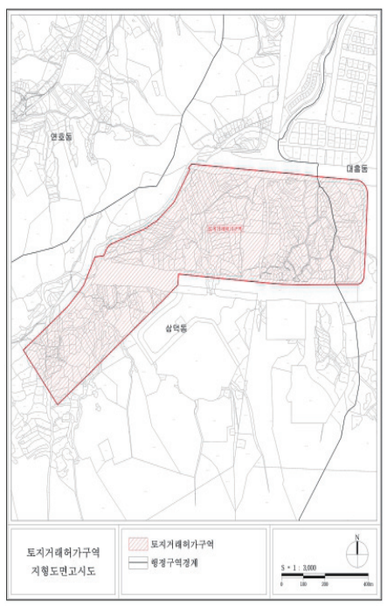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수성구 삼덕동 및 대흥동 일원 584,357㎡로써, 지역 디지털산업 혁신 거점인 수성알파시티를 선제적으로 확장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비수도권 최대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제2 수성알파시티 조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개발예정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수성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창엽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제2 수성알파시티 조성 사업은 기업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확장이 필요한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지역의 지가 안정을 위해 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며,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고,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 시 축소·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구미시, 원희룡 장관 연이은 구미 방문…지역 현안 청취

구미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8월과 9월 구미 방문에 이어 29일 세 번째로 방문해 지역 현장을 둘러보며 기업 현장 간담회 등 구미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원희룡 장관은 구미역 현장에서 『KTX-이음 구미역 정차 및 경부선 고속화 개량』에 대한 필요성을 청취했으며, 선기동으로 이동해 노후되고 협소한 경부선 철도 횡단 박스로 인해 지역 간 교류 단절과 주민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개량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시장, KTX 구미역 정차 · 경부선 개량 등 요청

원희룡 장관은 지난해 8, 9월 구미 상의에서 '지방이 미래다! 기업투자가 몰리는 대한민국의 구미'와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국토균형개발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경북의 심장인 구미가 성장해야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미가 경북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구미 방문으로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아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해 조기 착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의 국비 지원 약속을 지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이날 원희룡 장관은 김장호 시장과 면담을 통해 지역의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장호 시장은 △구미국가산업단지 1~3단지 연결 교량 신설 △대구경북선(서대구~의성) 동구미역 신설 △지방도927호선(국도33호선~5산단~신공항) 국도 승격 △구미 사곡역사 신설에 따른 역명 개정 △협소하고 노후된 경부선 철도횡단 박스(선기동, 원평동) 개량 사업 국비 지원 건의 등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원희룡 장관은 구미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역 기업들과 소통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구자근 국회의원, 김장호 시장, 안주찬 시의회 의장,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도·시의원, 반도체 업체를 포함한 지역기업체들이 참석했으며 △구미 국가 5산업단지 2단계 지역 입주업종 확대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조기 건설 △항공 신산업(드론) 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공역 통합협의체 구성 및 낙동강 유역 비행제한공역 규제 완화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원희룡 장관은 "오늘 현장 방문과 지역 기업체와의 허심탄회한 소통으로 지역의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바쁜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 구미를 재방문한 원희룡 장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자리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구미시가 대구경북신공항 배후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울진군,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 참석

롯데케미칼, GS건설, SK에코플랜트, GS에너지, 효성중공업, 비에이치아이 MOU 체결

울진군은 28일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도시 울진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해 열린 것으로, 신규 국가산업단지 6개 후보지 지자체 및 30여 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별 지원전략, 입지 장점 등 투자 매력을 적극 홍보했다.

이날 울진군은'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안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근 들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청정전력이 풍부한 울진군은 원자력 청정수소 산업의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하며 큰 이목을 이끌었다.

이어 수소 관련 앵커기업인 롯데케미칼, GS건설, SK에코플랜트, GS에너지, 효성중공업, 비에이치아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청정수소 전주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를 확고히 했다.

경북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울진은 동해안 수소경제벨트의 성장을 견인하는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도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하면 총 10기의 원전을 보유한 세계최다 원전 보유지역이다. 따라서 풍부한 원자력 청정전력을 국가산단에 공급함으로써 경제적인 수준의 청정수소를 대량생산하고, 탄소중립시대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울진은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에 이르는 청정수소 전주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소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울진군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다. 울진군은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 운영과 함께 최고의 인센티브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삼척-포항 철도 개통이 2025년 1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나아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및 동해안 고속도로 개설까지 이루어지면 동해안을 따라서 수소산업의 물류·교통 접근성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탄소중립 시대에 사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영덕 해녀 소재 창작연희극 '숨비 – 바다' 실제 해녀들과 교감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은 11월 24일, 예주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인 전통연희컴퍼니[예심]의 창작연희극 '숨비-바다'가 영덕무형문화재전수관 소극장에서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전했다.

경북문화재단의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숨비-바다'는 동해안 해녀들의 고달픈 삶과 세대 갈등, 명맥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룬 연희극으로, 지난해에 공연한 '바다의 딸 해녀'를 고선평 연출가와 박지명 작곡가 참여해 새롭게 완성한 작품이다.

해녀들의 삶과 사연이 씨줄날줄로 촘촘히 엮어낸 '숨비-바다'는 소멸돼가는 동해안 해녀 문화를 보존하고 되살리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평가받았다. 특히 거의 만석을 채운 관객들에겐 깊은 여운과 감동을 남겼는데'물질의 노래'에선 관객과 배우가 하나 되어 박수를 치고 후렴구를 따라 부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영덕 대부리 해녀마을의 실제 해녀 10명이 직접 관람하면서 공연의 의미를 더했다.

약 90분 공연에서 영덕 해녀의 존재를 알리고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한 전통연희컴퍼니[예심]의 장임순 대표는 커튼콜에서 실제 해녀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며 훈훈한 여운을 남겼다.

전통연희컴퍼니[예심]은'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로, 지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해 군민 극단의 기틀을 만들었고, 전통무용 등 예술 교육과 함께 '숨비-바다'와 같이 지역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창작 활동으로 사라져가는 지역문화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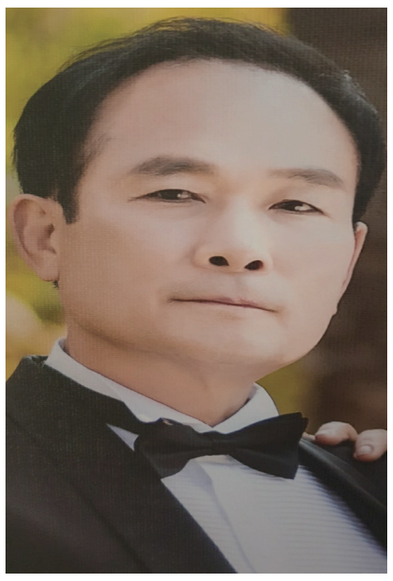
한편, 현재 예주문화예술회관은 내년 4월 재개관을 목표로 대극장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 중이다.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 대극장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안전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향후 공연 일정과 교육 사업 내용은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문화/기자

칼럼

부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를 보고서

2030세계박람회 유치 투표 결과, 리야드 119표, 부산 29표, 로마 17표… 막판 총력전에도 사우디 '오일머니 파워'에 고배…저개발국 몰표간 듯 "꿈은 이뤄진다. 특히 함께 하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진다"는 자세로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2035 세계박람회를 준비해야



문화매일 영남 지사장 윤근수

지난 28일 오후, 막을 내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는 한마디로 오일달러 위력에 진솔한 부산 박람회 유치가 무너진 어이없는 결과물이었음을 엿보게 해, 정말 이렇게도 황금의 위력이 빛을 발휘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허탈을 감출 수 없고 과연 이렇게 세계 각국들이 양심을 파면서까지 오일 위력에 무너져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한편으로 화가 치밀어 오른다.

솔직히, 유치 열기와 준비상태, 프리엔테이션에서 보여준 것을 보면 결코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부산의 준비상태에 한참 못 미치는 것임이 확연히 들어 났는데, 어찌 이렇게 무참하게 1차 투표에서 크게 무너지자니….정말 이렇게 하고도 세계는 진정 양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 2030 부산박람회 유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노력해 왔는가를 돌아다보면 실로 눈물겹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지난 28일, 2030세계박람회를 위해 현대차그룹 회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28일 오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2030년세계박람회 개최지 성공을 위해 열정을 다해 달려갔지만, 투표 결과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다.

이날 28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총 182개국 중 90.6%인 165개국이 참가해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가 119표, 대한민국'부산시' 29표, 이탈리아'로마'가 17표를 각각 획득해 2차 결선투표 없이 사우디아라비가 2030세계박람회 유치 도시로 결정됐다.

이번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는 참여국 중 1차투표에서 2/3 이상표를 얻은 국가가 나오면 2차투표없이 그대로 개최지가 결정되며, 2/3미만 표를 획득할 경우 결선투표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아쉬웁게도 사우디 아리바아의'리비아'가 참가국 165개국 중 2/3인 110표를 훌쩍 넘긴 119표로 결선투표없이 여유롭게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번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전략은 1차에서 사우디가 3분의 2 이상 표를 얻지 못하도록 최대한 저지하면서 이탈리아를 누르고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에 역전하겠다는 전략으로 이번 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했다. 하나, 어처구니없게도 투표 직전까지 내비친 역전 기대감과는 달리 예상보다 훨씬 큰 표 차이로 1차에서 결과가 나타나 우리의 전략은 무참하게 수포로 돌아가고 말어 진한 아쉬움을 감출수 없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투표 직후 회견에서 "국민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의 지원과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면서, 한 총리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BIE 회원국 182개국을 다니며 갖게 된 외교적인 새로운 자산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온,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민 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BIE 실사단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한마음으로 노력해 왔다" 면서 "부산 시민들의 꿈이 무산되어 너무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솔직히 2030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뒤늦게 뛰어 들어 출발시부터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열세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 회원국을 일일이 접촉해 설득하며 후반부로 갈수록 박빙 판세까지 추격했다는 나름의 자체 판단을 해왔었다. 심지어는 투표일인 이날까지도 결선에 진출해 이탈리아 지지표와 사우디 이탈표를 흡수하면 대역전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내다 봤다.

이날, 최종 프레젠테이션(PT)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형준 부산시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부산엑스포 유치 위원회를 이끌어온 인사들과 국제적 지명도가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나승연 부산엑스포 홍보대사까지 총 5명이 나서 왜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해야 하는 가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강조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선발 주자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벽은 상상을 초월하게도 높았음이 확연히 들어났다.

이번 2030세계박람회 유치 실패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사우디처럼 종교나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표가 적은데다, 여기에 더해 사우디가 '오일머니'를 앞세워 일찌감치 회원국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포섭돼, 이를 뒤집는다는 것은 애초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형국이었다.

마침 터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인권 탄압 등이 혹, 사우디에 부정적인 국제사회 여론으로 작용해 이것이 이번 유치전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결과는 허탈 그 자체였음이 들어 났다.

유치위원회 자문 역할을 한 김이태 부산대 교수는 "사우디는 왕권 강화를 위해 국민 충성지지를 확보하는 일종으로 엑스포 등 대형 이벤트를 추진했다"며 "천문학적인 개발 차관과 기금을 주는 역할을 해서 금전적인 투표가 이뤄졌다"고 분석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경제난이 심화한 저개발 국가들이 사우디에 몰표를 몰아 준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고 아쉬워했다.

이제 2030세계박람회 유치 전쟁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듯이 포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차기 유치를 위해 우리는 노력 또 노력해야 한다. 어차피 우리는 이번 유치전에 사우디보다 한참 뒤늦게 출발한 후발주자 였지 않는가? 그렇기에 지독히 좌절하는 것은 결코 아니될 일이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을 지지해준 회원국에 감사를 표하고, 유치과정에서 약속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치전 과정에서 쌓은 외교 네트워크도 국가 자산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번 투표 결과는 아쉽지만, 부산의 뛰어난 역량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2035년 엑스포 유치에 다시 한번 나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투표 결과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것은 가슴 아프지만, 과거에도 주요 국제 대회와 행사는 여러 차례 재도전 끝에 성사된 경우가 많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한 시도 과정 자체가 외교의 지평을 넓혀왔다"고 했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전!

참 아쉽게도 우리의 꿈은 여기서 좌절이란 뼈아픈 상처를 입었다. 최초 뛰어들때부터 한참 뒤쳐진 후발주자였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 보인다.

하나, 유치전쟁이 끝났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멈춰 버린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우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꿈은 이뤄진다. 특히 함께 하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진다"고 했다.

우리 부산시는 여기서 좌절하지말고 다가오는 2035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182개국을 찾아 다니면서 우리를 위해 마음을 써준 점을 일일이 감사 드리고 비록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든 회원국일지라도 그들에게 섭섭함을 토로함이 없이 우리의 유치 노력을 이해해 줘 고맙다고 감사를 드리면서 2035년을 위해 일찌감치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는 참다운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비록 지금은 패했지만, 나중에 승리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 "Thimk ahead, think prerare"('먼저 생각하고 먼저 준비하라')는 준비된 자의 특권처럼**, 7년뒤 유치 성공으로 멋진 박람회를 만들어 세계속에 찬란한 전무후무한 세계박람회를 만들어 낸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빛을 발휘할 있으리라 생각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부산시는 절치부심, 다가오는 2035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힘을 쏟아 주길 주문드려 본다.

아울러 패배한 부산시이지만,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적 공감대를 몰아 부산시가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잣대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그동안 수고해 준 대한민국 정부와 무엇보다 열정을 다해 온 박형준 부산시장이하 부산시민들의 노력에 뜨거운 박수와 지지를 보내본다.

윤근수/기자

칼럼

'시한폭탄' 된 홍콩ELS공포, 금융권 신뢰회복계기 삼아야

홍콩에이치(H)지수(HSCEI | 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주가연계증권 | Equity Linked Security) 투자자들이 큰 폭의 원금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실제로 원금손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를 대규모로 판매해온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금융당국이 긴급 실태 조사에 나섰다. 투자 규모만도 14조 원대에 이르러 손실 규모도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5대 은행에서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관련 상품 규모만 8조 4,100억 원으로, 소비자 피해는 최소 3조 원 이상, 최대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역대 최악의 금융사고인 라임펀드 피해액인 약 1조 6,000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 Derivative Linked Fund) 사태 당시 피해액이 4,000억 원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 규모가 합해서 약 2조 원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피해가 얼마나 클 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ELS를 판매하면서 가입자에게 투자위험과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렸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LS(주가 연계증권)는 기초자산으로 삼은 개별 주식이나 주가지수가 만기(통상 3년)까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원금에 더해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주로 은행들이 펀드(ELF)나 신탁(ELT) 형태로 판매한다. 기초자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을 내지만, 만기에 기준 시점에 비해 기초자산 가격이 판매 시점보다 35~55% 이상 하락하면 손실이 나는데,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4대 증권사(미래·NH·KB·삼성)에서 팔려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H지수 ELS는 국내 5대 은행에서만 약 13조 원에 육박하고, 4대 증권사에서는 2조 4,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판매 잔액은 20조 원가량이다. 증권사 간판 상품으로 홍콩H지수가 폭락하지 않으면 '예금금리+α'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신탁과 펀드 형태로 대거 ELS를 팔았다. 그런데 홍콩H지수가 2021년 2월 7일 12,100으로 고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로 들어서 지난 11월 24일 기준 6,075.65로 반 토막이 될 정도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달 새 만기가 돌아온 ELS 상품들은 45%가 넘는 원금손실이 확정됐다. 홍콩H지수가 반등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후 만기가 되는 상품과 증권사 판매분을 감안하면 손실은 더 불어날 수 있다.

투자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른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말로는 '고위험, 고수익'으로, 위험성이 높은 투자상품일수록, 그에 따른 이익도 크다는 의미다. ELS는 100% 손실까지 각오해야 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투자자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 역시 투자자가 진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의 운용 목적은 리스크-오프(Risk-off | 위험 회피)와 수익 추구로 구분할 수 있지만 어느 쪽이건 본질적인 고위험((High risk)을 동반하게 된다. 예금자 보호 장치도 없고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그렇지만 금융사의 경쟁적인 ELS 판매가 적절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벌써 "은행에서 원금손실은 없을 거라고 해서 투자했다"라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절대 원금손실 날 일이 없다"라는 상품 소개를 받았다고 분노를 표출하는 피해자도 있다.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이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이 고객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률과 예금상품처럼 안전하다는 점만 강조하고 위험 요소인 손실 가능성과 홍콩H지수의 큰 변동성을 제대로 알리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ELS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우량기업 50곳을 추려 산출한 지수를 추종한다. 기초자산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수익을 얻는 구조다. 당시 저금리 기조라서 은행에 돈을 넣어둬 봤자 연 1% 정도의 이자를 받던 시기라 3~4%를 준다는 이 ELS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은행은 3~6개월마다 중도 상환이 가능한 이 상품으로 비이자 수익을 톡톡히 올릴 수 있어 판매에 열을 올렸다. 미·중 갈등과 중국 기업 실적 악화로 지수가 이렇게 급락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은행이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ELS는 구조가 복잡하고 '녹-인 배리어(Knock-in barrier | 기초자산이 원금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최저 기준선)'를 벗어나면 대규모 손실이 나는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은 상품을 팔 때 충분히 이 같은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과 제50조(투자권유 준칙)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가 더욱 강화된 터다.

게다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중 제17조(적합성원칙)와 제19조(설명의무) 시행으로 ELS를 팔 때는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자필 설명 등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켰다고 금융사가 할 일을 다 한 건 결연코 아니다. ELS 투자자 상당수가 고령자인 만큼 상품 구조와 위험을 요식적으로 설명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분여 동안 인공지능(AI)으로부터 형식적으로 듣는 설명이 얼마나 충실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은행들이 홍콩H지수가 하락할 때도 꾸준히 ELS 상품을 팔았다는 점에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시장 상황을 외면했다는 비판과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늑장 대응에 나서는 감독 당국의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파생결합증권(DLS |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사태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의 홍역에 이어서 또 한 번 대규모 원금손실이 임박하면서 금융권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게 됐다. 차제에 은행이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게 적절했는지 깊이 따져볼 일이다. 금융당국이 판매사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에 나선 만큼 철저히 진상과 실태를 밝혀 은행의 책임 여부를 엄중히 가려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무너진 금융권 신뢰 회복은 물론 판매사 책임뿐 아니라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박근종/작가

강원권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2023년 11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는 주제로 강원권 성주류화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공감토론회는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거버넌스 모델로 지방 성주류화정책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등 3개 분야의 발표사례로 40여건을 선정했다.

네 번째로 개최되는 강원권 공감토론회는 박윤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고, 횡성군 성주류화정책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 방향(김은숙/횡성군의원),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사업(권금화/태백시 시민참여단장), 횡성군 농촌 남녀 동일 임금(박은정/횡성군 홍보팀장) 등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가 발표되며, 정유선 강원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위원장, 박해숙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장, 한영미 횡성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강원권 토론회에는 차은숙 원주시의회 의원(전여네 강원지역 대표), 김숙영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원장, 전금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특보 등 현장 축사를 비롯하여, 강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연구진,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횡성군 여성농업인 등이 참석하여 강원권 성평등 정책의 실행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등 강원지역 모범사례 발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강원도 횡성군은 단군 이래 처음으로 2020년 밭농사의 남녀 간 임금격차를 개선하면서 동일임금 체계를 구축해냈다"면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민관 합동으로 농촌 동일 임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성주류화를 실천하기 위한 삼각연대(여성농민, 시민단체, 연구기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이등원/기자

아산시, 한국해비타트 여성위원회 '희망의 집짓기 사업' 헌정식 진행

박경귀 아산시장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모두 힘써야"

아산시와 한국해비타트충남세종지회는 지난 27일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에서 한국해비타트 여성위원회 희망의 집짓기 사업 헌정식을 가졌다.

이번 헌정식은 한국해비타트 자원봉사자들이 4개월 동안 힘을 모아 지은 집을 한부모 가정에게 제공하고 이를 기념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경귀 아산시장, 마희자 한국해비타트 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순선 후원회장(성창베네피나회장), 김장자 삼남개발회장, 윤학희 한국해비타트충남세종지회 이사장, 김소윤 한국해비타트충남세종지회 이사, 김정호 한국해비타트충남세종지회 실행위원장, 박성식 해비타트교회 담임목사, 김인우 신창면장, 박희성 신창면 행복키움추진단장(창암1리 이장)이 참석하여 입주가정을 축하했다.

한국해비타트는 지난 6월 26일 외부보안 취약으로 개선이 시급한 다자녀·한부모가정의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했던 '2023여성들의집짓기 패션쇼&바자'의 행사를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아산시 여성복지과의 추천으로 대상가정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박경귀 시장은 "한국해비타트가 보금자리들을 수백 채를 고쳐오고 새로 집을 지어주는 일을 끊임없이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며,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도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앞장서서 발굴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한국해비타트충남세종지회 윤학희 이사장은 "행사로 마련한 기금으로 사회 곳곳에 소외된 여성과 가정에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후원자들과 봉사자와 함께 지은 집이니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는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976년 미국에서 시작했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집과 마을을 짓고 희망을 전하고 있다. 전 세계 76개국에서 지금까지 약 4천6백만 명의 주거환경을 개선했으며, 1994년 한국법인으로 설립되어 희망의 집짓기, 재해재난 긴급 주거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지원 등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원호/기자

천안시, '희망 2024 나눔캠페인'12월1일 시작…62일간

이웃돕기 모금운동 2024년 1월31일까지

천안시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이웃돕기 모금운동 '희망 2024 나눔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천안을 가치있게'를 표어로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나눔 문화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모금사업은 ▲가족구성원이 매달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가정' ▲기업의 임직원이 매월 약정한 후원금을 급여에서 자동 공제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착한 일터' ▲개인 1억 원 이상 고액기부 '아너소사이어티' 등이 있다.

지난해는 46억1,800만 원이 모금됐으며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월동난방비, 명절지원비 등의 지원사업에 67억2,600만 원이 배분됐다.

성금 기부는 전화, 지로, 계좌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천안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천안시복지재단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순회모금 행사는 12월 15일 천안시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김원호/기자

충북도, 하반기 기업 · 소상공인 대상 사전 컨설팅감사 집중 운영

신규투자, 각종 인 · 허가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형 컨설팅 실시

충북도는 경기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신규투자, 각종 인허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해결형 사전 컨설팅감사를 집중 운영 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의 하반기 기업, 소상공인 대상 사전 컨설팅감사는 2023년 12월 22일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도 및 시, 군 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일반 기업이나 개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 활동과 관련한 건축, 개발행위, 보조금 등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감사제도가 생소한 일반 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관, 상공회의소,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등을 방문하여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도 컨설팅감사팀 외 전문가 심의단 운영도 검토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감사관은 "경기 침제로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도내 기업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제시할 예정으로, 기업인 또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상반기에도 집중운영 기간동안 산단내 유치업종 변경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내 어려움을 해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란 공무원이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적극행정을 도모하고자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충청북도에서는 2021년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를 제정하여 연 100건이상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정화/기자

태백시, 체육대회 보조금 효율적 운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태백시는 지방보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체육대회 보조금을 2024년 설립 예정인 스포츠재단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복지·교육 등의 보조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 페널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태백시 2023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는 103억 원이며, 이중 체육대회 보조금이 총액한도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은 복지, 교육, 안전, 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조사업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인해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보조금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다.

시에 따르면 2024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는 107억 원이고, 이 중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편성될 예정인 56억 원을 스포츠재단 출연금으로 전환하면 총액한도 내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용할 수 있고 나아가 복지, 교육, 경제 분야 보조금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백시는 체육대회 등 행사 증가 요인으로 2023년 지방교부세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에서 31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으며, 현재 역점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육성에 따른 체육대회 확대 시 지방교부세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페널티는 지속되어 시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조사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따른 내실 있는 보조사업 운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제주시, 토지 무단 개발행위 단속·행정처분

5월부터 무단 개발행위 단속 결과, 토지형질 변경 등 10건 적발

제주시는 5월부터 무단 개발행위를 단속해 10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개발을 방지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절토, 성토, 포장)하거나 물건 적치, 공작물 설치 등 불법행위 6건에 대해 자진원상회복, 4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계고 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계고 중인 토지에 대해 조치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 이행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위반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토지개발 계획의 적정성, 기반 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 조화 등을 고려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은 "무단 개발행위 단속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곽건/기자

서울시, '혹한추위'해결사로, 어르신의 따뜻한 겨울나기 총력지원

서울시, 노인복지관·경로당·난방비 지원 확대로 '우리동네 한파쉼터' 조성

서울시는 동절기 기습적인 매서운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어르신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복지시설 및 가정 내 취약 어르신의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 대해서 추가로 난방비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노인복지관에 올해 초 예비비 2억원의 난방비를 운영비에 포함해 25개소에 지급했고, 11월 말 난방비 등으로 운영비가 부족한 시립노인복지관에 1억원여의 난방비를 추가로 교부했다.

또한, 경로당에는 11월부터 경로당 난방비 기준 지원단가가 개소당40만원(3만원 상향)으로 상향되어 16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경로당에는 이미 올 상반기 특별교부금을 통해 1,458개소를 대상으로 총 11억원의 5개월 난방비가 연초 이미 지급된 바 있다.

추운 겨울, 외출이 더욱 어려울 거동불편 어르신 2,253명을 대상으로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추가로 지원한다. 평소 1일 1식이었던 도시락 배달은 1일 2식을, 주2회였던 밑반찬 배달은 주 4회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특히, 도시락, 밑반찬 등을 배달하는 일자리 사업단에 포함되어 있는 노노케어는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의미의 공익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운 겨울철 어르신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절기 저소득 어르신의 소득 공백을 방지하면서 혹한의 추위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서로가 서로를' 챙겨 주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또한, 복지관 및 지역단체에서는 지역사회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절기 김장 나누기 활동으로 11월 중 12,018명에게 김치를 전달했고, 겨울이불, 전기요, 연료비 등을 후원받아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28일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오찬을 하고 어르신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겨울철 대비책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올 겨울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취약계층이 머무는 이용시설 중에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겨울나기 준비가 잘 되어있는지 점검하고, 어르신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어려움은 없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마련됐다.

또한 서울시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 및 독거 노인 등 취약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3,279명의 수행인력이 약 36천명의 취약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상시 안부확인에 더해 한파특보시 수시로 안전을 확인한다,

2022년에는 5번의 한파특보 발령 시 전화, 방문, IoT 등을 활용하여 격일로 안부확인하여 총 17만건의 서비스를 시행했다.

자치구별 각 수행기관에서는 어르신별 욕구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며, 돌봄 수행인력들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특히, 수행인력이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한파에 취약한 노인을 파악하여, 말벗서비스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지원하는 한편, 가정내 난방기, 난방연료 가정 내 장비를 점검하여 동절기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있다.

우울감이 심한 어르신의 경우 자조모임을 형성하여 우울감,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한 집단활동 상담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 형성·지원하며,

방문 뿐만아니라, 전화로도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 안전, 복지 서비스 등 정보제공을 하며 어르신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안전·건강 등 포괄적 돌봄이 필요한 만65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누적 41,944명의 어르신이 서비스를 제공했다.('23.9. 기준)

서울시는 지역 내 더 많은 취약 어르신들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다각도로 홍보하고, 신규신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아,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시, 겨울철에 위험할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르신과 말동무를 하면서 따뜻한 관계형성을 통해 전반적인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한다.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는 약 3만여명의 이용자가 재가방문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덧붙여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에서는 동절기 활동이 축소되어 우울감, 무기력증을 더 느끼는 어르신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을 챙기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기관인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는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우울·자살·가족·성 상담 등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내방, 전화,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 및 독거 노인 등 취약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3,279명의 수행인력이 약 36천명의 취약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상시 안부확인에 더해 한파특보시 수시로 안전을 확인한다,

2022년에는 5번의 한파특보 발령 시 전화, 방문, IoT 등을 활용하여 격일로 안부확인하여 총 17만건의 서비스를 시행했다.

자치구별 각 수행기관에서는 어르신별 욕구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며, 돌봄 수행인력들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특히, 수행인력이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한파에 취약한 노인을 파악하여, 말벗서비스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지원하는 한편, 가정내 난방기, 난방연료 가정 내 장비를 점검하여 동절기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있다.

우울감이 심한 어르신의 경우 자조모임을 형성하여 우울감,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한 집단활동 상담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 형성·지원하며, 방문 뿐만아니라, 전화로도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 안전, 복지 서비스 등 정보제공을 하며 어르신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안전·건강 등 포괄적 돌봄이 필요한 만65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누적 41,944명의 어르신이 서비스를 제공했다.('23.9. 기준)

서울시는 지역 내 더 많은 취약 어르신들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다각도로 홍보하고, 신규신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아,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시, 겨울철에 위험할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르신과 말동무를 하면서 따뜻한 관계형성을 통해 전반적인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한다.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는 약 3만여명의 이용자가 재가방문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덧붙여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에서는 동절기 활동이 축소되어 우울감, 무기력증을 더 느끼는 어르신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을 챙기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기관인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는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우울·자살·가족·성 상담 등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내방, 전화,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다.

최광수/기자

화순군, 겨울철 축사 화재 예방 점검 철저

화순군은 축사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점검을 펼친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내달 28일까지 축사(소 593개소, 돼지 28개소, 닭 255개소)에 대해 실시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화재 진압 등에 필요한 소방용수 확보, 진입로 협소로 인한 화재 진압 지연, 전기배선 노후화, 보온 전등·배전반으로 인한 화재위험, 구성자재 등에 대해 점검할 것이며, 각 읍면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축사 화재 예방 및 발생 시 대처요령을 안내하고, 시설 내 보온기(자재 포함) 및 환기시설, 누전차단기 등을 점검한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재산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험 가입(가축재해보험 등)을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11월 관내 축사에서 화재 1건 발생 외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 발생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만큼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경호/기자

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확대 운영

시, 27일부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행위 강력 대응 위한 불법투기 상시단속반 본격 운영

전주시가 청소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불법투기 근절 단속반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시는 최근 채용된 10명의 상시단속반에 대한 직무교육 및 현장 실무교육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현장에 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청소 민원 처리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 동안 8명의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단속반을 시범 운영해왔으며, 금회에는 2명을 증원한 10명으로 금년 하반기에 2명 추가 채용하여 12명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인 1조 5개조로 구성된 상시단속반은 주로 심야 시간과 새벽 시간에 원룸촌과 상가집중지역, 공업단지 주변 등 불법투기 취약지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일반쓰레기·재활용쓰레기 혼합배출 △차량을 통한 불법 투기행위 등을 단속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시는 상시단속반과 취약지역에 설치된 500여 대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감시카메라로 확인이 어려운 투기행위나 카메라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는 지능형 투기행위 등에 대한 물 샐 틈 없는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만큼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 현수막 게시 △전주시 공식 유튜브를 활용한 영상 홍보 △일회용품 줄이기 시민활동가 활동 등을 통한 홍보 등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활동도 꾸준히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단속반을 시범 운영한 결과 운영 전 454건(40백만 원)보다 증가한 불법투기 1333건을 적발해 총 1억5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성순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과 깨끗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상시단속반 운영을 통해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의식 개선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부산교육청, 학교관리자의 미래 교육 역량 키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30일부터 이틀간 온라인(ZOOM)을 통해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관리자 740여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교육 학교관리자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디지털 수업 혁신 문화조성, 다양한 하이터치 방법, 수업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학교관리자의 미래 교육 대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주제별 전문가의 강의로 이 연수를 진행한다.

먼저, 윤종록 KAIST과학기술정책대학원 초빙교수가 '데이터 대항해시대 소프트파워를 키우자'를 주제로 강의한다.

윤 교수는 교육 패러다임 변화, 미래 학교의 변화된 모습, 미래 교육의 방향 등을 알려준다.

김자미 고려대학교 교수는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갈 미래 교육'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김 교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통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등을 참가자들에게 안내한다.

계보경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디지털교과서부장은 'AI in Education 트렌드와 이슈'에 대해 강의한다.

계 부장은 디지털 전환의 의미, 교육에서의 AI 활용, 교육분야 AI 활용 시 고려 사항 등을 알려줄 계획이다.

또, 담당 장학사가 나와 2025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운영,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향후 일정,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일정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연수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학교관리자들의 미래 교육 대응능력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우리 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학교 현장에 잘 적용해 학생 맞춤형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경북교육청,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정책사업 관리에 발 벗고 나서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한 교육 정책사업 맞춤형 컨설팅 추진

경북교육청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본청 부서를 대상으로'부서별 찾아가는 교육 정책사업 정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교육 정책사업 필요성 인식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정책사업 정비는 분석과 검토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을 '유지·통합·축소·확대·이관·폐지'하여 학교의 업무 총량을 감축하여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정비되는 교육 정책사업은 사업 총량 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고유업무를 포함했다.

사업 총량제는 신규사업 1개 도입 시 기존사업 1개 폐지를 원칙으로 하며, 한시적 사업과 시행 3년이 경과 한 사업 등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폐지.정비하는 사업 일몰제에 두어 학교 행정업무 경감에 중점을 뒀다.

김현광 정책혁신과장은 "이번 컨설팅으로 사업 담당자들에게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고민과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을 분석하는 장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지속해서 교육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나눔회 열어 회원이 만든 활동집, 전시물, 영상물 공유

울산교육청, 다듣영어 학부모동아리 역량 강화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올 한해 다듣영어 학부모동아리의 활동 사례를 공유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시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다듣영어 학부모동아리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다듣영어 학부모동아리 나눔회'를 열었다.

올해 4년째로 맞이하는 다듣영어 학부모동아리는 가정에서 다듣영어를 실천할 다양한 방법을 공유해 자녀의 영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모둠 17개에 학부모 19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단위 학교에 건강한 학부모동아리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존 권역별 동아리와 함께 두동초, 두왕초, 호계초, 화진초에서 처음으로 학교별 동아리를 운영했다.

성과나눔회 1부에서는 올 한해 동아리 활동을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활동집, 전시물, 영상물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다듣영어 시작 이후 자녀와 부모의 성장과 변화를 놓고 학부모지원단과 함께 소통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의 영어교육을 목표로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는데, 가정의 화목한 분위기를 선물 받았다"며 "다듣영어 학부모동아리는 아이와 엄마가 함께 성장하는 동아리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부모지원단을 운영해 동아리 회원에게 맞춤형 교육과 1대1 온라인 멘토링을 제공했다. 학부모지원단은 '솔빛이네 엄마표 영어연수' 저자인 이남수 씨 등 전국의 다듣영어 학부모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 학부모 리더인 '다듣지기단'을 구성해 DVD 관리, 사례 나눔 등 동아리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동아리 회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동아리 운영 만족도가 99.5%, 향후 지속 의향도 88.1%로 회원들의 동아리 활동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해 동안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애쓰신 동아리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다듣영어 학부모동아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진/기자

전남교육청 '2024 전남교육' 설명회 12월 4~5일 개최

전라남도교육청이 2024년 전남교육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설명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설명회를 두 차례 갖는다.

'현장과 정책을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2024 전남교육 설명회는 12월 4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동부권)과 12월 5일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중·서부권)에서 학교급별 교(원)장 9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1부에서는 김대중 교육감이 '2024 전남교육 정책 방향과 역점 과제'를 설명하고, 이어서 △ 2024 전남교육 주요업무계획 △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 전남교육 AI.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 안내한다.

2부에서는 좌장을 중심으로 교육감과 학교급별 대표 교(원)장 5명이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포럼이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예년과 달리 전남교육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큰 틀에서 제시된 전남교육 정책 방향에 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본청 각 실·과에서 주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교육 대전환은 현장과 동떨어져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4년 전남교육 정책이 전남의 모든 지역과 학교에서 구체화되고, 교실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배/기자

경남교육청, 학교 관리자 대상 학생 자살 예방 연수 개최

경상남도교육청은 11월 29일 창원대학교 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학교 관리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 예방 연수를 열었다.

이번 연수는 연말과 수능 이후 우울, 불안 등을 겪고 있는 학생의 마음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학교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계명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이호준 교수, 경상국립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가 '청소년 자살의 이해 및 학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소아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징 △자살 자해의 위험 요인 △위기 학생에 대한 학교와 관리자의 역할, 위기 개입 방안을 교육했다. 또 도교육청 업무 담당자가 △자살 사안 보고 및 학교 응급 심리 지원 절차 등을 안내했다.

연수에 참여한 학교 관리자는 "이번 연수에서 학생들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알고, 학교 안에서 사안이 발생할 때 대처 방법을 알 수 있어 유익한 연수가 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학생 자살 등 위기 사안 발생 시, 학교 응급 심리 지원 절차에 따라 위(Wee)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선별검사, 애도 교육 및 특별 상담을 진행하는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정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연수가 학교 내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을 파악하고, 학교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 지원하여 학생의 정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파주교육지원청, 2023 파주 미래교육 네트워크 워크숍 운영

함께 펼치고 공유하는 미래교육 소통의 장

파주교육지원청은 11월 28일 홍원연수원에서 파주 지역의 미래교육 네트워크 교원을 대상으로 '2023 파주 미래교육 네트워크 워크숍'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2023 파주 미래교육 네트워크는 파주 관내의 초·중·고·특 미래교육 담당교사 108명을 대상으로 단위 학교의 학교자율과제 실행을 지원하고 경기미래교육을 함께 실현하기 위하여 2023학년도 상반기 조성되어 업무 담당자 간의 소통 창구로 활용됐다.

이번'2023 파주 미래교육 네트워크 워크숍'은 108명의 초·중·고·특 미래교육 담당교사들이 함께 모여 1부에서는'학교자율과제, 학교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경기도교육청의 미래교육 기획담당 장학사의 정책 안내가 진행됐으며 동패중학교와 초롱초등학교의 학교자율과제 운영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워크숍 2부에서는 학교자율과제 핵심 주제별 공유의 시간으로 주제별 서로 다른 장소에 모여 2023 학교자율과제 운영을 되돌아보고 학교자율과제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체 숙의의 방법, 예산 계획의 방법, 공동체 실행의 방법, 학교자율과제 평가의 방법 등을 함께 공유했으며 더 나은 2024 학교자율과제 운영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최은미 교육장은 "파주 미래교육 네트워크 워크숍에서 이루어지는 소통과 공유를 통해 현장 적합도 높은 우수과제의 일반화와 동반 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하며 학교 스스로 현안 과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의 자율역량 강화가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학교의 본질 회복과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한영기/기자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대상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12월 6일까지 설문조사 진행, 전보 기준 개선안 마련 취지

경북교육청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교육공무직원 중 전보직종 4,200여 명을 대상으로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보 직종인 교무행정사.특수교육실무자.영양사.조리사.조리원의 전보 만족도를 조사하여 전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설문 내용은 △전보 만족도와 공정성 △근무지 선호도 △전보 점수 기준 개선 방향 등 19개 문항으로 온라인 링크 또는 QR코드 접속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피·선호 근무지와 전보 개선 방향 등을 파악해 향후 전보 기준을 개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사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충남도, 디스플레이 기업인 한자리

차세대디스플레이 미래 과제 발굴 등 경쟁력 강화 위한 조찬 토론회

충남도 내 디스플레이 분야 기업인들이 전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충남의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28일 아산시 모나밸리에서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을 비롯해 서규석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문성준 충남디스플레이산업기업협의회장, 기업인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디스플레이 기업인 조찬 토론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디스플레이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향후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환을 준비하고, 도내 디스플레이 관련 산·관·연 간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표창수여, 토론, 특강 및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유재룡 실장은 "충남은 전세계 디스플레이 매출의 5분의 1을 담당하고, 국내 매출의 과반을 책임지고 있다"며 "여기 계신 기업인들의 노력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경우 매출액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도 디스플레이산업 거점으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을 집적화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아산시가 대상지로 지정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역대 비사회간접자본(SOC)사업 최대 규모인 9500억원이 투입되며, 도는 예타 통과 시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연계해 디스플레이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유 실장은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60명 규모의 한국광기술원 분원을 설치해 예타에 대응할 것"이라며 "이 뿐만 아니라 도는 디스플레이혁신공정플랫폼 구축,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부착형 디스플레이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다수의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표창 수여식에서는 △장형석 ㈜동호테크 대표 △정유돈 신비앤텍㈜ 대표 △안재규 국보옵틱스 부장 △김태영 ㈜에이치비테크놀로지 팀장 △김정희 아산시 주무관 △김담희 충남테크노파크 연구원 △전시욱 한국광기술원 센터장이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충남의 차세대디스플레이 시장 전망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한 참석자들은 이상진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혁신기획본부장의 '대전환시대! 비즈니스를 혁신하라'를 주제로 한 강연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쳤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국의 급부상과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을 격려하고, 산업계 의견을 청취한 유 실장은 "민선 8기는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가 곧 충남발전과 국가 경제안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산업육성에 매진하겠다"며 "충남이 디스플레이 메카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는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진주시, '중동 온라인 기계무역사절단' 운영으로 해외시장 개척

10개 기업 참가해 튀르키예·이집트 바이어와 98건 수출상담 추진

진주시는 기계부품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튀르키예·이집트 시장 개척을 위한 온라인 기계무역사절단을 27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동 온라인 기계무역사임단은 진주시가 주최하고 KOTRA 경남 지원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진주시 소재 우수 기계부품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해 해외 바이어와 98건의 수출 상담을 할 계획이다.

시는 해외 시장성 평가 등을 거쳐 지난 9월 선정된 관내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9월부터 두 달간 튀르키예와 이집트 현지에서 기업 홍보와 바이어 발굴을 추진했으며, 바이어와 기업 간 원활한 상담을 위해 1대 1 매칭을 진행해왔다.

중동 국제정세 악화로 현지로 무역사절단을 직접 파견하는 대신 온라인 화상 수출 상담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번 온라인 기계무역사절단을 추진하게 됐으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원하는 기업에는 진주시지식산업센터 내 설치된 상설 화상상담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유효 상담이 이루어진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해당지역 수출에 필요한 통관, 계약, 인증 등 현지 조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기계무역사절단에 참여한 성모 대표는 "국제 정세 악화로 현지 파견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현지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국내 농기계 시장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기계 부품 기업체에는 새로운 활로를 찾는 해법이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계부품 중소기업의 수출길을 열기 위해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한 바이어 섭외 등 철저한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화상상담에 참여하는 10개사가 현지 바이어와의 성공적인 마케팅과 협약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수출 물류비와 수출 보험료를 지원하고, 해외 지사화 사업, 해외 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온라인 무역사절단의 대상 국가인 튀르키예는 풍부한 노동력과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완성품 중심의 제조업과 자동차·가전·섬유·철강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이집트는 중동아프리카 내 외국 기업과의 기술 제휴나 투자유치를 통해 제조업 기반을 육성하고 있으며,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해 있어 새로운 해외시장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광용/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임남댐 무단방류 사전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 체결

기존 협의체에서 한강홍수통제소까지 확대해 7개 기관 업무협약

강원특별자치도는 11.28일 화천댐에서 북한강 접경지역 여름철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군·관 업무협약을 확대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한강수계의 홍수 조절 관리, 홍수 예경보 등 환경부 소속 기관인 한강홍수통제소를 추가해 협의체를 확대했으며,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새롭게 정교하게 정비하고 비상 상황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게 된다.

최초 협약식은 2020년 12월에 강원도, 국가정보원, 화천군, 2군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6개 기관이 임남댐 무단방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민·군·관 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그간 6개 기관으로 구성됐던 협의체는 도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유관기관에 사전 정보 공유 등 적극적인 협업을 펼쳐왔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22년 12월 임남댐 관측을 위해 CCTV 등 첨단장비를 설치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해 임남댐 수위 등 수문상황을 일 단위로 모니터링, 23년 8월에는 임남댐 상시관측을 위한 열영상 감시장비를 시범 설치 운영했다.

김진태 지사는 "임남댐 무단방류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확대 구축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한강홍수통제소까지 참여하며 예측불가 상황에 대해 대응체계가 더욱 갖춰질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지사는 "북한이 2018년 9.19 군사합의를 위반 한 횟수가 3,600회가 넘는 데, 이는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 이라며, 접경지역 관할 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9.19. 군사합의 일부효력 무효화를 선언하자 북은 전면폐기를 선언한 상황인 만큼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더욱 대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등원/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데이터안심구역 활용 공동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데이터안심구역을 활용한 우수 아이디어 사례가 한 자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데이터안심구역 활용 공동 경진대회」 시상식을 11월 28일 오후 2시에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안심구역 간 협력하에 이종 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최초로 지정기관 공동주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라북도·국민연금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으로 추진됐다.

주관기관들은 본 대회를 위하여 상호 간 공유 가능한 데이터 목록을 선별하고 카탈로그를 제작·게시하는 등, 참여자들이 개별 데이터안심구역에서 보유중인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최종 15팀(대상 1팀, 최우수상 5팀, 우수상 9팀)을 선정하는 본 대회에는 대학생, 청년 등 총 151팀이 참여하여 약 10: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상의 영예는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한 '플랜4에코' 팀이 안았다. 대상팀은 카드사와 택배사의 데이터와 전국 음식물 폐기물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푸드뱅크 활성화 및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위한 푸드드라이브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으며, 특히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경제적 문제를 처리하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 5개 팀에는 △'유동인구와 지역 특성 분석을 통해 지역 경쟁력 확보 방안 및 지방소멸 대응 맞춤형 정책'을 제언한 '감자무봤나'팀, △소득소비부채 인구통계 및 신용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발굴 정책'을 제언한 '웰빙선대'팀을 비롯하여, △우수 농가 및 직종별 경제 활동 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로코팜'팀, △고속도로 교통사고 및 도로상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교통사각지대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활성화 정책'을 제시한 '데복이'팀, △시간대별 전력 사용량을 분석하여 '서울시 구별 활동지수 산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제언한 'P-카츄'팀이 선정됐다.

최종 수상한 15개 팀은 본 대회 후원기업인 엘지유플러스, 나이스지니데이타의 '24년 신입사원 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 특전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성과발표회에서는 데이터 산업 현업에 종사 중인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데이터 산업의 비전과 데이터 분석 직무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대상팀과 최우수상 5개 팀의 수상작 발표가 이어졌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대회는 참여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이종 데이터를 융합하여 보다 참신한 활용 사례를 도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안심구역이 함께 뜻을 모아 추진된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참여자들이 다양한 미개방데이터를 분석하여 우수한 활용 사례를 도출함으로써 AI 시대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정부도 이용자들의 수요에 맞추어 데이터안심구역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목포시 공고 제2023 - 1875 호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2030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 개최 및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목포시 상동, 용해동 일원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 을 위해 갓바위 근린공원 일부를 축소하고자 2030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0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3. 11. 30.

목 포 시 장

1. 주요 내용
가. 공 고 명 : 2030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 개최 및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나. 위 치 : 목포시 상동, 용해동 갓바위근린공원 일원
다. 변경사유 : 2022년 8월 갓바위 지방정원 선정에 따라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갓바위 근린공원 일부 축소

2. 변경 내용
가.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ㅇ갓바위근린공원 축소 : 기정) 1.174㎢ → 변경) 0.678㎢(감 0.496㎢)
나.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ㅇ갓바위근린공원 축소 : 기정) 796,566㎡ → 변경) 678,159㎡(감 118,407㎡)

3.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가. 공청회 개최 목적 : 2030 목포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나. 개최일시 : 2023. 12. 19.(화) 14:00~16:00
다. 개최장소 : 이로동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

4. 주민 의견청취(열람.공고)에 관한 사항
가. 열람기간 : 2023. 11. 30. ~ 2023. 12. 22.
나. 열람장소 : 목포시 도시디자인과/공원녹지과

5. 관계도서 : 게재 생략(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 / 공원녹지과 비치)

6. 의견제출
ㅇ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ㅇ 본 공고(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061-270-8414) / 공원녹지과(☎061-270-8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
대한민국의 舌, 울진
2023
죽변항
수산물축제
가자, 죽변! 먹자, 수산물!
2023. 12. 15(금) ~ 17(일)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일원
주최 | 울진군
주관 | 울진군축제발전위원회
후원 | 한수원(주) 한울원자력본부
울진죽변수협
초대가수
안성훈
요요미